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지리학석사 학위논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으로서 저항의 공간과 제3의 공간 조성

- 인도네시아 추모비 건립 시도와 파타힐라 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

2021 년 0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준 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으로서 저항의 공간과 제3의 공간 조성

인도네시아 추모비 건립 시도와파타힐라 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신 혜 란

이 논문을 지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04 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준 영

박준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 년 06 월

위	원 장 _	
부위	원장 _	
위	원	

국 문 초 록

식민주의에는 뚜렷한 지리적 차원이 존재한다. 식민주의 욕망은 새로운 지리를 향한 욕망이었으며, 이 욕망은 지리적 팽창과 식민지 경관 변화, 지도 단순화 등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지리적 회복은 탈식민주의 실천 및 분석의 핵심 목표이다.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통해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사례를 분석한다. 탈식민주의는 접두어 '탈'의 해석을 두고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식민주의 이후, Coming After)와 의미론적 탈식민주의(식민주의 너머, Going Beyond)로 분화되어 논쟁과 절충이 발생한다. 여기서 탈구조주의의 수용 여부는 두 해석을 구분 짓는 주요 요인이다. 시간론적 탈식민주의는 주로 탈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결합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한편, 의미론적 탈식민주의는 탈구조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탈구조주의의 수용 여부로 구분할 수 있는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에서는 공간 실천 개념이 발견된다. 먼저 탈구조주의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은 '저항의 공간'인데, 여기서는 식민주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저항이 강조된다. 그러나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인 저항의 공간 실천에 대해 식민주의 이항대립 구도를 재현하고 고착화시키며 진정한 해방을 실현할 수 없다는 비관주의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탈구조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형성된 의미론적 탈식민주의의공간 실천 개념은 호미 바바(Homi K. Bhabha)가 제안한 '제3의 공간'이다. 제3의 공간 실천에서는 정형화된 식민 구도(역할)보다 양가적 관계를 상정하고 혼성적 실천이 강조된다. 의미론적 탈식민주의와 공간 실천 개념인 제3의공간에는 그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비관주의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활동가들이 건립 시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이하 '추모비')와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파타힐라 광장을 사례 공간으로 분석한다. 두 사례 공간은 각각 '저항의 공간'과 '제3의 공간'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한 국가의 두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 갖는 다른 특성으로부터 기존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 공간이다. 또한 두 사례 공간에서는 공간 실천 행위자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례 공간은 앞서 소개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과 비관주의를 통해 분석된다. 공간 실천 행위자의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 의도는 공간 실천을 통해 공간적 결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건립 시도한 추모비는 식민적 이항대립 구도에서 피해자의 실천이 강조되는 공간으로,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인 '저항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인 활동 가들의 추모비 건립 시도는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에게 건립 협력을 요청·설 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며 무산된다. 추모비 건립 협력 무산 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측의 반발 및 방해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탈식민주의 인식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및 독립 역 사에서 형성된 탈식민주의 인식의 주요 특성은 '객관적 역사 이해'와 '실용 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 는 한인 활동가들이 협력을 요청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 참하지 않았다. 민족주의적 감정이 공간 실천의 동기로써 유발되고, 일본과 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공간 실천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과 차 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는 한인 활동가들의 '저항의 공간'실천 협력 요청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 선택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에 대한 비관주의와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사례 공간인 파타힐라 광장은 식민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가 주도한 도시 공간 재생 사업에 공간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 더해지며 현재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했다.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서는 양가적 관계와 혼성성등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인 '제3의 공간' 특성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공간 실천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이 사례는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개념인 '제3의 공간'으로 해석되는 한편, 이 개념을 구체화하며 기존 논의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 개념을 구체화하는 공간 실천은 '자발적인 방문에 의한 비의도적 실천'으로, 비폭력적이고 폭넓은 탈식민주의 실천 참여를 가능케 한다.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의 해방적 공간 실천은

구체적으로 관찰되는데, 이를 통해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에 제기되는 비관주의를 동시에 극복한다. 나아가 탈식민주의 비관주의를 적절히 반박하는 파타힐라 광장의 해방적 공간 실천 특성은 다른 공간의 복수성의 실천과 분 석을 요청한다.

실제 사례 공간에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주로 개념·이론적 논의나 식민주의의 지리적 결과에 집중한 기존의 탈식민주의 지리(공간)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여러 기준에 의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 사례 공간의 공간 실천 결과를 탈식민주의 비관주의 반박에 활용했다. 이는 기존 탈식민주의 비관주의가 탈식민주의 내부 논쟁에만 소모적으로 활용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을 비롯하여 식민주의를 경험하고 탈식민주의인식과 실천을 고민하는 국가와 사회에 비교·참고점으로 제공될 수 있다.

주요어: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저항의 공간, 제3의 공간, 인도네시아,

파타힐라 광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학 번: 2019-2413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6
	1. 연구 대상	7
	2. 연구 방법	9
제	3 절 연구의 흐름	13
제	2 장 문헌연구	15
제	1 절 탈식민주의의 지리와 공간	15
	1. (탈)식민주의와 지리	15
	2. 탈식민주의 비관주의와 공간	18
제	2 절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26
	1. 저항의 공간	26
	2. 제3의 공간	29
제	3 장 사례소개	37
제	1 절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역사	37
	1.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역사	37
	2.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이후 역사	42
제	2 절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47
	1. 파타힐라 광장	47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탈식민주의 공간	54

제 4 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 60
제 1 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	····· 60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와 무산 …	60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 무산의 원	인… 65
제 2 절 저항의 공간	····· 69
1. 저항의 공간: 사례 비교를 통해	69
2. 탈식민주의 인식과 비관주의	····· 77
제 5 장 파타힐라 광장	···· 86
제 1 절 도시 공간 재생 사업	····· 86
1. 식민주의 공간에서 탈식민주의 공간으로의 변화	86
2. 혼성성의 공간	····· 95
제 2 절 제3의 공간 너머	····· 101
1. 탈식민주의 인식과 공간 실천	101
2. 자발적이며 비의도적인 공간 실천	103
제 6 장 결론	···· 110
참고문헌	···· 114
Abstract ······	···· 119
부록: 인터뷰 참여자 명단	···· 123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	14
[그림	2] 연구 분석 틀	36
[그림	3]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기간 구분	41
[그림	4] 꼬따 뚜아 및 파타힐라 광장 위치	48
[그림	5] 도시공간재생사업 전후의 파타힐라 광장	51
[그림	6] 파타힐라 광장과 주변 건물	53
[그림	7] 암바라와 일본군 '위안부' 수용소	56
[그림	8] 인도네사아일본군 '위간부' 문제 관련 일시적 탈식만주의 공간…	58
[그림	9]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앞 추모비	71
[그림	10] 18세기 말 파타힐라 광장	87
[그림	11] 파타힐라 광장 주변 주요 건물과 시설 위치…	88
[그림	12]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의 과거와 현재	89
[그림	13]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 내부	89
[그림	14] 카페 바타비아 내부	90
[그림	15] 식민주의 공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파타힐라 광장…	92
[그림	16] 파타힐라 광장에서 실천되는 문화적 행위	92
[그림	17] 파타힐라 광장의 혼성적 요소	100
[그림	18] 연구 결과	10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사례를 분석한다. 탈식민주의 실천은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억압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어 제도적인 독립 이후에는 문화적 신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탈식민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이러한 저항 실천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서 시작했으며, 역사와 문학,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식민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탈식민주의(연구, 실천 등)에는 여러 논쟁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논쟁은 접두어 탈(Post-)의 해석을 두고 발생한다. 접두어 '탈'의 해석은 크게 시간론적으로식민주의 '이후(coming after)', 혹은 의미론적으로 식민주의 '너머(going beyond)'로 나뉘며, 두 해석은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주로 대립하며 때로 절충되기도 한다(이경원, 2011).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 논의(연구)에는 각각 비관주의가 제기되며, 이는 탈식민주의 논쟁(대립)의 근거가 된다.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 해석은 탈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결합을 둘러싼 논쟁에 대입된다. 탈식민주의 연구는 20세기 중·후반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 이론적 분기점을 맞이한다(이경원, 2011; 간디, 2000).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논의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 출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호미 바바(Homi K. Bhabha)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등이 이 논의를 이끌었다. 주로 시간론적 탈식민주의는 탈구조주의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해석으로, 탈구조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와 탈구조주의의 결합을 둘러싼 논쟁은 탈식민주의의 지리에서도 새로운 논의

를 촉발시키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 대한 논의는 탈식민주의의 지리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적 식민주의는 지리적 확장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식민 권력은 식민지 경관을 변화시켜 식민 권력을 표현하고 식민 통치에 활용했 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에는 뚜렷한 지리적 흔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샤프. 2011). 따라서 탈식민주의 실천에서 지리를 둘러싼 투쟁, 또는 대안적 지리 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파일, 2013). 따라서 본 연 구는 탈식민적 상황에서 지리적 복원과 이에 대한 지리적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인 '저항의 공간'과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이자 호미 바바가 제 안한 혼성성이 실천되는 공간인 '제3의 공간'을 주요 분석 개념으로 활용한 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에 활용하는 두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 념은 탈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결합을 두고 분화된 시간론·의미론적 탈식 민주의 간 논쟁의 양측을 상징하는 공간 실천 개념이다. 두 개념을 실제 사 례 공간의 공간 실천에 대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탈식민주의 비관주의 로 검증하며 개념의 의미와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공간 실천 개념은 다른 결과를 갖는 본 연구의 두 사례 공간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을 분석하는 유용한 분석틀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된 탈식민주의 지리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탈식민주의의 지리와 공간 논의를 위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논의 (Roy, 2016; Hart, 2018; Griffiths, 2017), 혹은 실제 사례 지역(공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탈식민주의 지리·공간 실천보다는 식민주의 이후의 지리적 결과에 대한 서술(Datta 2019; Goodeeris, 2015; Cash·Kinnvall, 2017; Pugh, 2017)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최근 탈식민주의 지리적 논의에서 실제 사례 공간을 대상으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특히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개념인 혼성성과 제3의 공간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현실 사례에 적용하거나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없다(박민수, 2011; 김용규, 2005; 이소희, 2001)는 비판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의 지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에서 발견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구체적 공간에 대입하여 개념의 실천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존 탈식민주의 논의 범위의 확장을 시도한다.

동남아시아 해양부 중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서는 16세기 중후반부터 자바(Java)와 수마뜨라(Sumatera)를 중심으로 치열한 해상 무역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대상이 되었고, 17세기 초반부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다¹⁾. 약 3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덜란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는 1942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고 1945년 독립을 선언한다. 이후 인도네시아를 재침략한 네덜란드 등에 맞서 인도네시아는 독립전쟁을 치르고 1949년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맞이한다. 이처럼 긴식민 지배 및 점령 기간과 복잡한 독립 과정 속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탈식민주의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은 탈식민주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자바섬 서북부에 위치한 자카르타(네덜란드 식민지배 당시 '바타비아'(Batavia))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처음 진출한 지역이자 식민 지배를 위한 행정·무역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으로, 식민주의 지리적 결과가 각인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꼬따 뚜아(Kota Tua) 지역의 파타힐라 광장(Taman Fatahillah)이 있는데, 이 광장은 식민통치를 위한 주요 행정 기관들의 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광장에서는 정치범들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던 식민주의 비극적 피해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1970년대 이후 이 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인식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는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간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공간 실천이 더해지며 파타힐라 광장은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한편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을 당시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는

^{1) 1602}년부터 자바에 진출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는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을 식민지 경영했으며, 네덜란드는 1824년부터 인도네시아 를 직할 식민지화했다.

데, 같은 식민주의 역사적(민족적)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인도네시아 거주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를 건립하여탈식민주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시민 사회를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건립 시도는 무산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두 사례에서 드러나는 탈식민주의 인식과 공간 실천에 대해 분석한다. 두 사례는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주의 억압적 피해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피해 사실을 대상으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탈식민주의 인식과 실천 방식의 특성, 그리고 공간 실천의 결과 등이 기존 탈식민주의 (공간)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주목한다. 두 사례 공간은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공간 실천 의도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자, 앞서 언급한 탈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결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양 측(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을 상징하는 공간 실천 개념을 각각 상징하는 공간으로, 실제 사례 공간에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기존 공간 실천 논의의 확장을 시도하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 공간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집중한다.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탈식민주의 인식과 실천 의도는 공간 실천을통해 공간적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인식과 의도가 물화되어 존재하는 공간은 역으로 공간 실천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실천의 원인인 탈식민주의 인식과 실천 의도, 결과인 공간, 그리고 원인을 결과로 만드는(전달하는) 공간 실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적 맥락, 시대적 배경, 외부 행위자 개입 등 부가적인 요인으로 인해 결과로써 나타나는 공간의 특성은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관찰하는 공간은 사례 공간의 공간 실천 결과에 따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과 공간 실천 행위자들이 구상한 잠재적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목적을 갖는 본 연구는 아래 두 연구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 (1)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사례에서 나타나는 탈식민주의 인식과 실천 방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 (2) 사례 공간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탈식민주의 인식과 공간 실천 방식의 특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연구 질문 (1)은 인도네시아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저항의 공간, 제3의 공간)을 활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탈식민주의 공간 조성을 주도한행위자들의 의도와 실천 방식에 주목한다. 파타힐라 광장의 경우 주요 공간실천 행위자들은 재생 사업에서 (지방) 정부와 공간 사용자들이며, 일본군'위안부'추모비 건립 사례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한인 활동가들과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활동가 개인 및 단체 등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찰되는 특성을 역사적 자료와 관련 선행 연구 등을 활용하여 교차 검증한다.

이어서 연구 질문 (2)는 본 연구 사례에서 드러난 탈식민주의 인식·실천 특성(연구 질문 (1)의 답)이 기존 탈식민주의 논의(연구)와 인도네시아, 그 리고 식민주의를 경험한 국가 및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분석하 기 위함이다. 나아가 사례 공간 분석 결과를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에 제기되는 비관주의로 검증하며 관련 논의 확장을 시도한다. 탈식민주의 비 관주의가 주로 탈식민주의 연구 내부 논쟁에서만 소모적으로 활용되는 경향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와 같은 구체적 사례 분석은 비관주의 극복을 위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및 공간 실천 사례 분석 결과 중 해방적인 복수성의 실천에 주목하여 탈식민주의 비관주의 극복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지역(인도네시아)의 탈식민주의 인식 및 공간 실천에 대한 이해를 넘어 탈식민주의 분석 및 실천 전반에 하나의 참고점으로 제공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식민주의를 한국의 사회·역사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를 통해 한국어로 분석과 서술이 이루어지는 만큼,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의 여러 부분에서 한국의 탈식민주의 인식 및 공간 실천 특성과 자연스러운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인도

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식민주의 공간 중일부를 '치욕의 공간'으로 해석하여 없애거나? 식민적 공간 운영 방식의 변화 없이 그대로 재현하여 식민주의의 폭력성과 비극을 전시3'하는 방식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사례와 비교되며 그 의미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 등 다른 탈식민주의 인식 및 공간 실천을 비교·분석·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부가적인 함의라 할 수 있다.

^{2) 1993}년 8월 조선총독부 철거

³⁾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https://sphh.sscmc.or.kr/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사례 공간인 파타힐라 광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꼬따 뚜아 지 구(Kota Tua)에 위치해있다. 꼬따 뚜아는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행정 구역 으로는 북부 자카르타(Jakarta Utara)와 서부 자카르타(Jakarta Barat)에 걸 쳐 위치)해 있으며, 순다 끌라빠 항구(Sunda Kelapa)에서 시작하여 남쪽으 로 약 334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 사가 처음 진출하여 식민 경영 및 지배를 위한 주요 행정 무역 기관들이 이 곳에 건설되었다. 당시 식민 권력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간을 네덜란드의 도시와 비슷한 경관을 갖도록 조성했 으며, 이는 식민주의 권력의 위엄을 강조하는 경관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졌 다(여운경, 2018).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이 지구는 한동안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 1972년 인도네시아 특별 수도 자카르타 정부(The Government of the Special Capital Region of Jakarta, Daerah Khusus Ibukota(DKI) Jakarta)가 유적지(Heritage site)로 지정하며 재생 사업의 대 상 지역이 된다. 그러나 이후 재생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2000 년대 들어와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의 주도로 이 지역은 문화·예술 지역으 로 변화한다.

파타힐라 광장 공간의 변화(도시 공간 재생 사업)는 (지방)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간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공간 실천이 개입하며 현재의 공간 특성을 형성했다. 이를 통해 파타힐라 광장은 식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에서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공간의 긴 역사에서 2000년대 후반 공간 재생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현재(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자카르타 봉쇄(이동 제한) 조치 이전)까지의 기간에 집중한다. 1970년대부터 도시 공간 재생 계획을 수립한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라는 구체적

인 목표를 갖고 재생 사업을 추진하며 파타힐라 광장의 변화가 본격화됐다. 이 변화를 통해 파타힐라 광장은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재생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의도와 공간 사용자(기존의 공간 사용자들과 새롭게 방문하는 사용자들)들의 공간 실천이 조화를 이루거나 때로는 충돌하며 현재의 공간 특성을 형성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사례 공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이하 추모비)4) 건립 시도이다. 추모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식민지배(점령)하던 지역 중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가 있었던 지역에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 사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건립한 조형물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건립하고자 했던 추모비는 2011년 한국 서울에서 처음 건립되었으며, 이후 다양한형태로 응용되어 한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에 건설되었다. 추모비로 인해 조성되는 공간은 식민주의 폭력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며 저항하는 탈식민주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활동가들이 2017년부터 약 2년간 인도네시아에 추모비를 건립하려다 무산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상으로 설명한 두 공간의 위치와 관련 역사 등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3장과 본론(제4~5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 참여한 관계자나 공간 조성 이후 공간 사용자들의 의도와 실천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대상 공간의 다양한 공간 실천 행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공간 실천특성과 인식을 다층적·다각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파타힐라 광장은 재생 사업에 참여하거나 재생 사업 이후 공간을 관리하는 공간 관계자와 공간 사용

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건립한 조형물은 다양한 표현으로 불린다. 우선 한국에서는 조형물에 묘사한 인물을 표현하는 '소녀상'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형물을 처음 건립하고 다른 지역의 조형물 건립을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에서는 활동이 추구하는 목표의 의미를 담아 '평화비'를 공식 표현으로 사용한다. 한국 외 지역에서는 '평화비'의 영문 표현인 'Statue of Peace'가 가장흔히 사용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기림비'라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상징 조형물' 혹은 '추모비'라 표현한다. 이 조형물 건립을 위한 공간 실천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표현들 중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자 여러 형태의 조형물을 아우르는 표현인 '추모비'를 사용한다.

자들을 인터뷰하고, 또한 이들의 공간 실천을 평가할 전문가(탈식민주의 역사·정치·경제 전문가)를 인터뷰한다.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공간 조성을 시도한 한인 활동가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로 인터뷰한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 실천 행위자, 관찰자 등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며 공간 특성과 공간 실천 특성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간 실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연구 방법 으로 활용했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 방법은 여러 개인과 집단이 체험한 경험의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이며, 이를 통해 관련 논의 개념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개발하는 근거이론적 접근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구체적인 질적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 문헌 조사, 현장 조사 등이다. 주된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로,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찰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부가적인 연구 방법으로 활용됐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개월동안 실시되었다. 이 연구 조사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대면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 보편적으로 수행되던 연구 방법에 제한이 있었으며, 일부 조사는 대안적 방식으로 수행됐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 받았으며(심의번호: IRB No. 2102/002~011), 승인받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심층 인터뷰는 총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상은 두 사례 공간 관련자들과 탈식민주의 전문가 등이다. 파타힐라 광장의 경우, 재생 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문화·예술 공간(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리하는 관계자, 그리고 선행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추모비 사례 분석을 위해

추모비 조성을 시도한 한인 활동가들과 기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활동가 및 연구자들을 인터뷰했으며, 공간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해 한국 및 다른 국가(호주 시드니,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추모비를 건립했던 행위자들을 추가로 인터뷰했다. 또한 추가로 인도네시아탈식민주의 인식·실천(역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정치·경제 전문가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 인터뷰 대상은 각 사례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중심 인터뷰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이들에게 관련인터뷰 대상자를 추천받아 인터뷰하는 눈덩이 굴리기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했다. 총 31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두 사례 공간과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전반을 기준으로 균형있게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인터뷰 참여자 명단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대표 인터뷰 질문을 사전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인터뷰는 사전에 전달한 대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추가 질문을 확장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공간 실천 과정과 공간 실천에 담긴 의도를 묻는 질문과 공간 조성 이후 공간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묻는 질문보다는 공간의 특성과 공간 실천의 의미(인도네시아 역사에서 갖는 의미, 현재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갖는 의미,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갖는 의미, 다른 국가 및 사회에서 갖는 함의 등)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이와 같이 사례 공간과 공간 실천의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사례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을 인터뷰에 참여시켰다. 인터뷰 결과는 여러 인터뷰 참여자들로부터 누적 검증된 답변의 경우 공간 및 공간 실천의 특성으로 서술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위해 필요한 답변 중 일부 혹은 단일 답변의 경우 답변 서술과 함께 이를 밝혔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대면 인터뷰, 온라인 화상 인터뷰, 서면(이메일) 인터뷰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19 바 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에게 가능한 인터뷰 방법을 미리 안내 하여 사전에 협의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 방식의 특성상 즉각적인 추가 질문이 어려운 서면 인터뷰의 경우 추가 인터뷰가 여러 차례 실시됐다. 면담 인터뷰와 온라인 화상 인터뷰의 경우 평균 약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고, 추가 인터뷰의 경우 이보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의선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했으며, 일부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특별히 인도네시아어로 표현해야 할 경우)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됐다.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진행된 인터뷰 답변을 본 연구에 인용할 때, 답변 내용을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이해를 위해 답변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역했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얻어 녹화 혹은 녹취했으며,연구 작성에 필요한 부분을 전사했다.인터뷰 녹화녹취·전사 파일은연구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보완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문헌 조사는 관련 선행 연구와 관련 기관의 보고서 및 단행본, 선행 연구, 회의록, 관련 홍보물, 언론 기사 등을 활용했다. 파타힐라 광장은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가 주도한 재생 사업과 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보고서와 설명 자료등을 주요 문헌 자료로 활용했으며, 이를 평가한 외부 기관의 자료도 연구에 활용했다. 추모비 사례의 경우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가발간한 자료와 다수의 연구자들이 진행한 선행 연구와 단행본을 참고했다.현장 조사는 조사 기간 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연구자가직접 사례 공간(파타힐라 광장)에 방문하지 못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의 연구 기관(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사공경)의 협조를 통해 대리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진과 진술을 통해 조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자가 대상 공간에 방문한 경험도 활용했다. 이처럼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인 심층 인터뷰를 보충하고 증명하는 부가적인 연구 방법으로 활용했다.

이상으로 설명한 연구 방법은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경관 분석에 활용된다. 경관 분석은 주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행위자의 실천 의도와 목적에서 구상된 공간 경관을 분석하며, 공간

실천에 의해 조성된 공간의 경우 물리적 공간의 경관 분석도 이루어진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요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의도와 목적에서 구상된 공 간의 위치와 형태, 역할 등을 드러내고,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에서 인터뷰 결과를 뒷받침하는 시각 자료를 본문에 제시하며 경관을 분석한다.

제 3 절 연구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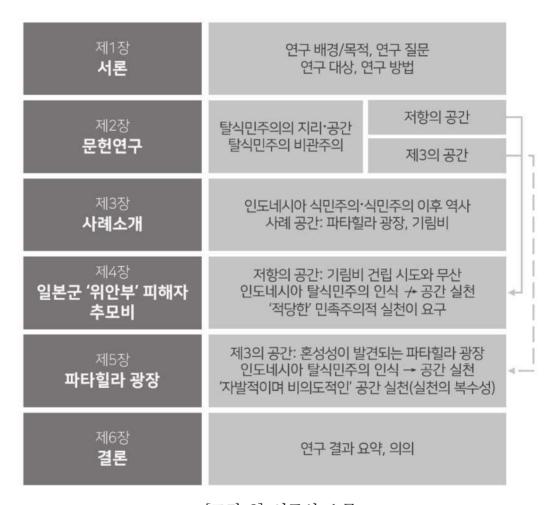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연구 사례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식민주의의 지리적 결과와 탈식민주의의 지리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탈식민주의의 대표적인 개념과 논쟁, 그리고 탈식민주의 비관주의를 설명하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들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탈식민주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논쟁의 양 측을 상징하는 공간 실천 개념인 '저항의 공간'과 '제3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두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은 본 연구에서 사례 공간을 분석하는 주요 분석틀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 공간인 파타힐라 광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비 조성 시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1절에서는 본 연구 사례 공간 이해를 위한 맥락적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식민주의·식민주의 이후 역사를 설명한다.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역사는 길고 복잡한 역사이지만, 여기서는 연구 사례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상황적 배경을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두 사례 공간의 위치와 조성 역사 및 배경, 공간 특성, 그리고 조성 과정에참여한 행위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이 절에서는 인도네시아(탈)식민주의 역사가 탈식민주의 인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이 인식이 사례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과 제5장은 본 연구의 본론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한다. 먼저 제4장에서는 첫 번째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 과정을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의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간 특성을 다른 지역에 건립한 추모비 사례와 비교하며 공간과 공간실천 특성을 '저항의 공간'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두 번째 사례인 파타힐라 광장의 도시 공간 재생 사업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공간 실천 행위자인 (지방) 정부와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 의도와방식을 분석한다. 문화예술의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변화한 파타힐라 광장을

혼성성이 발견되는 '제3의 공간'으로 해석한다. 또한 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의 주요 특성을 밝히고 이 특성과 각 사례 공간 실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나아가 본론의 각 장에서는 사례의 공간 실천과 그 결 과가 탈식민주의 비관주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며 기존 탈식민 주의 논의의 확장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 결과가 갖는 함의를 서술한다. 이상의 연구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2] 연구의 흐름

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탈식민주의의 지리와 공간

1. (탈)식민주의와 지리

식민주의 욕망은 새로운 지리를 향한 욕망이며, 식민주의의 확장은 지리적 팽창을 통해 실현된다(샤프, 2011). 서양 제국주의 권력은 식민주의 욕망에의해 새로운 세계(동양 세계, Orient)의 상상된 지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자 했다(이영진, 2021). 또한 식민지 경관 변화, 지도 단순화 등과 같이식민주의 결과는 지리적으로 나타난다(샤프, 2011; 스콧, 2010; 앤더슨 2018). 즉, 식민 권력은 식민주의 지리적 욕망을 실현하고 지리적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식민지 논리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에는 뚜렷한지리적 차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문헌연구의 첫 번째 절인 이번 절에서는 식민주의의 지리적 결과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며 탈식민주의의지리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나아가 탈식민주의 지리적 논의의 분석 틀을 제시하기 위해 탈식민주의 학문적 논의·논쟁 속에서 발견되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설명한다.

첫 번째로 설명할 식민주의의 지리적 결과는 식민지 경관의 변화이다. 식민 권력은 식민지에 진출하여 그들의 식민주의적 욕망과 권력을 식민지 공간에 재현하고자 했다. 식민주의 언어(정당화 논리)는 여러 식민지 공간(장소)에서 실행으로 옮겨졌고, 식민주의의 흔적은 식민 권력의 공간 재현과 같이지리적 결과를 통해 나타난다(샤프, 2011). 식민지의 건축물들은 식민 지배자들의 권력적 은유로서 피지배자들을 위압하는 형태로 건축하는가 하면(샤프, 2011), 식민 지배 지역을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편의와 유흥을 위해 유럽의 경관을 억지로 재현하기도 했다(우신구, 2016).

또한 식민 권력은 식민주의의 공간적 재현을 위해 피지배자의 거주지를 구획하여 강제로 재위치시켰고, 이러한 지리적 범주화를 통해 이들을 식민주의에 순응하도록 훈육, 조정, 개조해갔다(샤프, 2011). 이를 위해 식민 지배권력은 서구 근대성에 근거한 합리성과 과학적 질서를 반영한 경관의 질서화를 추구했다(스콧, 2010). 식민 권력은 식민지 지리를 파괴하고 구획하는 자신들을 식민지 근대화의 주체로, 피식민 대상(지리와 사람)을 근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했다(스콧, 2010). 이처럼 식민 권력은 식민지 공간 경관 변화를통해 '유순하고 쓸모있는' 추상적 피식민 대상을 만들어냈다(샤프, 2011). 식민지 경관 변화 이후 피지배자들은 이질적인 공간 경관으로 인해 자신들의장소(공간)에서 탈장소화된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식민 권력은 권력을 표출하는 식민지 경관 변화를 효과적인 식민화 전략으로 인식했다.

다음으로 설명할 식민주의의 지리적 결과는 '가시성'을 위한 지도 단순화이다. 식민 지배자들은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식민지를 파악하기 위해 식민지 지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다. 식민 권력은 본국과는 다른 식민지의 지형과 기후, 장소 질서(길, 구역 등) 등으로 인해 불안을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 지도를 단순화했다(스콧, 2010).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식민지 경관을 변화시키고 식민지 피지배자들을 범주화 및 재위치시켜 지도를 단순화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실제를 왜곡되게 반영하여 지도를 단순화했다(스콧, 2010). 지도는 항상 어느수준에서 현실을 왜곡하지만,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식민지 지도를 제작했다.

베네딕트 앤더슨(2018)은 단순화된 지도가 식민 권력의 식민지를 쉽게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지도라는 점에서 이를 '로고화된 지도 (map-as-logo)'라 표현하기도 했다. 단순화된 식민지 지도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도 식민 지배자의 통치 의도와 부합하면 식민 지배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식민지 통치와 행정은 이 단순화된 지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피지배자들은 지배자들이 지도를 왜곡한 의도대로 따를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스콧, 2010). 이를 통해 식민 권력은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단일한 지리를 상상한다(파일, 2013). 이러한 상상은 지도와

설계도 상의 이상적인 공간을 재현하고 식민 통치를 위한 전략의 근거가 됐다(샤프, 2011).

이상으로 설명한 식민주의의 지리적 결과는 탈식민주의 실천에서 지리를 둘러싼 투쟁, 또는 대안적 지리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파일, 2013). 탈식민주의의 지리는 중심부의 식민적 억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한동안 침묵을 강요받아 왔던 피식민 주체들의 목소리와 공간을 복원하는 목표를 갖는다(크레스웰, 2015). 탈식민주의의 지리를 통해 식민 지배에 활용된 권력 경관을 구체적인 장소에서 확인하고, 지리적(공간적) 실천을통해 식민주의 지리적 상상을 넘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을 시작할 수있다(샤프, 2011). 탈식민주의 이론과 실천에서 지리가 갖는 중요성은 공간,중심, 주변, 경계와 같은 어휘가 탈식민주의 이론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샤프, 20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 권력의 단일하고 단순한 식민지 지리에 대한 상상(욕망)과 실천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상징되는 서구 근대성에 기반한다. 그러나 식민지 경관의 변화와 지도 단순화를 통한 식민주의 지리적전략 속에서도 식민지의 지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련성 속에서 서로 다른 역사와 공간을 통해 다층적으로 연계된다(파일, 2013). 지리적 관련성은 피지배자들 사이에서 주로 형성되지만,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도 형성된다. 따라서 탈식민주의의 지리는 식민주의의 지리적 결과인 단순화된지리의 표면에서가 아닌, 복잡하고 이질적인 특성들의 가변적 관계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탈식민주의 실천과 연구의 발전 과정을 논쟁과 비관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탈식민주의의 지리적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소개한다.

2. 탈식민주의 비관주의와 공간

이데올로기로서 식민주의의 기원에 대해 여러 논쟁이 존재하지만, 제도적 식민주의는 대략 15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논의된다. 이후 제도적 식민주의는 19세기 말부터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발전되었으며, 20세기 초반에는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경쟁적으로 채택·실행됐다. 탈식민주의 실천이 제도·문화적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고 할 때, 탈식민주의 실천은 식민주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경원, 2011). 따라서탈식민주의 실천의 역사는 식민주의의 출현 및 발전의 역사로부터 발견할수 있다.

제도적 식민주의에 대항한 탈식민주의 실천은 식민주의가 존재했던 각사회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범위와 실천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탈식민주의 실천은 독립 이후(제도적 식민주의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배를 경험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정치·제도적으로 독립했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이들을 식민 지배했던 서구(로대표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식민주의적 영향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식민협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 ACS)의 라이베리아 건국 운동, 프랑스에 거주하던 흑인 지식인들이 흑인 정체성을 강조한 네그리튀드(Négritude) 운동 등이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제도적 식민주의 이후 탈식민주의 실천이다. 초기의탈식민주의 실천은 이와 같이 식민주의 권력에 대항하여 식민 질서의 단절혹은 전복을 위한 목적을 갖고 진행됐다(무어-길버트, 2003). 이후 탈식민주의 실천은 이론 및 논리로써의 식민주의 그 자체를 비판하고 미시 문화적식민주의를 발견·비판하며 새로운 해방적 담론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되었다(무어-길버트 2003; 간디, 2000).

탈식민주의 연구는 이와 같은 탈식민주의 실천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탈식민주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출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탈식민주의 연구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경험으로 형성된 서구 중심의근대성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사상·문학적 논의와 실천을 아우르는 개념으

로 등장했다(간디, 2000). 탈식민주의 실천 및 연구에서는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의 접두어 '탈(Post-)'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 접두어 '탈'은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남'은 크게 시간론적(연대기적) 벗어남과 의미론적(인식론적) 벗어남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이경원, 2000; 2011).

먼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 이후(after)를 뜻하며, 여기서는 식민주의 과거와 탈식민 현재를 시간적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과거와의 단절과 식민적 관계의 전복을 추구한다. 반면, 의미론적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 너머(beyond)를 뜻하며, 단절이나 전복의 대상으로써 과거 식민주의에 집중하기보다 새로운 해방적 질서로의 대체와 초극을 고민하고 실천한다(이경원, 2011; 무어-길버트, 2003). 이에 따라 탈식민주의는 접두어 '탈'의 두가지 의미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두 가지 의미를 절충·결합하는 방식으로이해·실천된다(이경원, 2011).

탈식민주의 연구에서 두 가지 해석은 서로에게 '비관주의'를 제기하며 논쟁한다. 먼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식민주의 이후) 실천 및 연구에는 식민주의와의 시간적 단절과 식민적 질서의 전복을 추구하는 반(反)식민적 저항이지만, 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식민주의가 다시 언급되고 식민적 질서를 재현되며 결과적으로 해방적 담론이 될 수 없다는 비관주의가 존재한다(이영진, 2021). 반면, 의미론적 탈식민주의(식민주의 너머) 실천 및 연구는 식민주의 질서 너머의 해방적 담론과 질서를 논의하며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에제기된 비관주의를 극복하려 시도하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여 실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또다른 비관주의가 존재한다(이경원, 1998; 무어-길버트, 2003).

아래에서는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소개한 탈식민주의 연구의 흐름을 하나의 분기점에 따라 둘로 나눠 살펴보고 이에 따른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을 각각 소개하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연구는 1950년대 알제리(당시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이하 파농)에 의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다(이경원, 2011; 김지현 외, 2012; 간디, 2000). 정신과 의사였던

파농은 식민적 상황에서 식민·피식민 주체들의 정신과 심리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탈식민 저항 이론을 발전시켰다. 파농이 정신의 탈식민화와 민족해방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그의 논의는 아체베(Albert Chinualumogu Achebe), 응구기(Ngũgĩ wa Thiong'o), 소잉카(Akinwande Oluwole "Wole" Soyinka) 등에 의해 식민지 독립 이후 아프리카 해방을 주장하는 민족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이경원, 2011).

1978년 출판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이하 사이드)의 '오리 엔탈리즘'은 탈식민주의 연구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oore-Gilbert, 1997; Gandhi, 1998). '오리엔탈리즘'은 이슬람과 중동 등 오리엔트 세계와 유럽, 미국 제국주의 세계를 양 측에 두고 두 세계 사이의 역사적으로 불균등한 관계를 탐구했다(무어-길버트, 2000; 이영진, 2021). 사이드의 탈식민주의 이론은 권력과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의 영향을 받았다(Moore-Gilbert, 1997; 간디, 2000). 푸 코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포장된 서구 근대성의 기만과 폭력성을 비판하는 데. 사이드의 탈식민주의 이론에서는 푸코의 이러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 활 용됐다. 사이드(2004)에 따르면, 식민적 상황에서 식민 권력은 서양과 동양 의 정체성을 정형화된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본질화하여 식민지에서 재현한 다. 이 구분과 재현은 서구 근대성에서 강조되는 이성과 합리성으로부터 나 온 '정상성'의 기준에 기반한다(사이드, 2004; 무어-길버트, 2003). 사이드 는 서구 제국주의의 권력과 지식으로부터 생겨나는 이분법적 재현체계와 담 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극복 필요성을 강조한다(무 어-길버트, 2003; 간디, 2000; 이경원, 2011). '오리엔탈리즘'이 식민주의 를 인식론적이며 문화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오리엔트에 대해 사 유하고 연구하는 특정한 서구적 양식과 재현적 폭력에 대한 저항을 논한다 는 점에서 이전의 탈식민주의 논의와 차별화된다(무어-길버트, 2000).

탈식민주의 연구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출간과 이에 따른 논의로 인해 주요한 분기점을 맞이한다(Moore-Gilbert, 1997; Gandhi, 1998). 탈식민주의 비평가 무어-길버트(Bart. J. Moore-Gilbert)는 탈식민주의 논의를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발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각각 '탈식민주의 비평'과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구분한다(이경원, 2011; 무어-길버트, 2000). 이 구분에서 탈식민주의 비평은 사이드 이전의 반식민 민족문학과 영연방 문학 연구와 비판 등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기 없이 앞서 설명한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함께 시작된 탈식민주의 실천으로부터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은 사이드 이후의 탈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탈식민주의 실천과 비평을 의미한다(이경원, 2011; 무어-길버트, 2000).

사이드의 탈식민주의 이해 방식은 이후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이하 스피박), 호미 바바(Homi K. Bhabha, 이하 바바) 등 탈구조주의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분법적 재현체계의 극복을 논의하는 사이드의 탈식민주의 이론은 스피박과 바바 등의탈식민주의 이론으로 이어지며 구체화된다. 이들에 따르면 식민 지배의 근거가 된 이분법적 재현체계는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되는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근대성의 산물이며, 따라서 탈식민주의 이론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무어-길버트, 2003; 간디, 2000).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이분법적 재현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표적인 탈근대적시도는 식민적 논리이자 탈식민 전략으로도 활용된 민족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이는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김용규, 2005; 이경원, 2011; 간디, 2000).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연구에서 서구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주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중세 시대에 신에게 의존하던 인식의 공간을 근대에 들어와 산업 자본주의나 민족성 등 세속적이고 근대적인 상상력의 산물로 채우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발전했다(김용규, 2005; 간디, 2000).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서구의 근대적 국민국가는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였고, 국민국가의 세력이 확장되며 영토 밖에서 타자를 찾아나선 것이 제국주의적 식민주의가 시작이다. 따라서 식민주의는 유럽(서구)민족주의의 폭력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에너지의 일부가 전승·확장된 것이라이해할 수 있다(간디, 2000). 식민 지배에 활용된 민족주의는 문화적 본질

주의로 차이를 생성하고 이를 식민적 상황에서 무비판적으로 적용·구축하였다(Moore-Gilbert, 1997; Gandhi, 1998). 본질주의화된 종족·인종적 정체성들을 보존하는 데에는 '우리'밖의 '타자'를 구성하는 '중심부의 손'(식민권력)이 존재한다(간디, 2000).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서구 근대성에서 발현된 민족주의는 식민 권력의 식민 통치에 활용되었다.

한편, 민족주의는 탈(반)식민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는 '민족자결주의'가 여러 반식민 저항 운동의 주요 계기가 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반식민 민족주의는 탈식민주의 이론의 추상적 담론을 정치화하는데도움이 되었으며, 억압받는 식민지 민중의 열망을 고무시키고 조직하는 등저항적인 대항 에너지가 민족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간다, 2000; 이경원, 2011). 그러나 다수의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반식민 저항에서 민족주의가 갖는 긍정적인(전략적, 효과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항적 (반식민) 민족주의는 탈식민화 기획에서 임시적이고 과도적 전략으로 인식·주장된다(간다, 2000). 이 주장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식민주의를 작동시킨주요 논리였다는 점에서 반식민 저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에는 마땅히 거부되고 궁극적으로는 탈식민주의 실천에 의해 폐기되어야 한다.

Gandhi(1998)는 탈식민주의 이론과 실천이 주체-타자의 정형화된 이분법적 구조를 거부하고 민족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탈민족주의적으로 전개될 때식민 역사를 비폭력적으로 수정 가능하며, 앞으로의 정치는 더 협동적인 초국가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희망적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르면 탈식민주의 실천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탈피(탈근대)로부터 전개되어야한다. 따라서 근대성과 민족주의에 의해 형성된 식민주의 이항대립의 구조는탈식민주의 실천에서 배제되어야한다. 이는 탈식민주의의 '탈' 접두어가 내포하는 해방성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구조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

탈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탈식민주의 이론에서는 일괄적으로 경계지어진 내부(주체, 우리)와 외부(타자)의 구별 대신 양자의 겹침과 착종(뒤섞임)이 부각된다(박민수, 2015). 이처럼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이론에서는 식민적 행위자들의 편견으로 고착화된 역할 및 특성보다 이들의 양가성 (ambivalence)에 주목한다. 탈식민 전략으로써 양가성은 탈식민주의 이론에

서 이항대립적 차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타자성 또는 대립항들의 불확정성을 초래하는 의미 작용으로 작용한다(최종천, 2011). 즉, 양가성은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지배 담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분법적 체계를 전복하는 전략으로 활용되며, 본질론적 개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정체성 거부하는 탈중심화된 저항 주체의 '역해게모니' 구상을 가능케 한다(간디, 2000). 즉, 탈식민주의 이론은 동일성의 철학과 지식을 현실에 대한 권력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거대 서사의 '압도하기(overvoming)에 대한 저항'의 시도이다(무어-길버트, 2003). 이처럼 거대 서사를 불신하는 탈식민주의 이론의 탈근대성, 탈구조주의적 특성은 탈식민주의 이론이 주류 학계 안에서 특권적인 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간디, 2000; 이경원, 2011).

반면, 일부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탈식민주의 이론이 서구 근대성의 탈 피를 주장하며 서구에서 발전한 탈구조주의에 영향을 받는 상황의 모순성을 비판하기도 한다(이경원, 1998; 2011; 무어-길버트, 2003). 이러한 비판은 탈식민주의 이론이 탈구조주의 개념을 차용하며 세련되어지고 학문적 특권을 획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복성을 상실해버린, 서구 학계 '문화 엘리트들' 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적 상품이라는 주장이다(Ahmad, 1994; 1995). 즉, 이는 서구의 정전(正典)을 제3세계 문화보다 우위에 두며 당면한 신식민주의의 현실은 외면한 채 탈식민 주체들의 투쟁성을 약화시켜 정치적 무기력 상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다(무어-길버트, 2003).

앞서 설명한 탈식민주의의 접두어 '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탈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결합을 둘러싼 논쟁에 대입할 수 있다. 사이드 이전의탈식민주의 연구(탈식민주의 비평)가 식민주의를 연대기적(시간론적)으로 이해하고 식민주의 과거와의 단절 및 전복을 논의했다면, 사이드 이후의 탈식민주의 연구(탈식민주의 이론)는 식민주의를 해체하고 극복하는 '의미론적으로 벗어남'을 주로 논의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탈구조주의를 거부하거나비판하는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를 역사적 실체로 이해하고 이에 대항한 저항을 논의한다. 반면,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를 역사·물질적인실체로 파악하기보다 양가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변적 실체로 파악하고대항적 질서보다 새로운 해방적 질서를 논의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탈구조

주의를 거부(비판)·수용하는 탈식민주의는 각각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와 의미론적 탈식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 비관주의와 탈구조주의의 수용을 둘러싼 탈식민주의 연구 논쟁에서 양 측이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도 서로 대응한다. 즉, 시간론적 탈식민주의로 설명한 기존의 탈식민주의 실천 및 연구(탈식민주의 비평)에는 식민주의와 식민적 구도가 재현되며 진정한 해방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판 및 비관주의가, 의미론적 탈식민주의로 설명한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탈식민주의 이론)에는 개념의 모호성으로인해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비판 및 비관주의가 제기된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연구의 과제는 두 가지 비관주의에 대한 극복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탈식민주의 연구와 실천은 식민주의에 대한 해방의 담론 (의미론적 '너머')이면서 구체적인 실천성(시간론적 '이후')을 가져야 한다. 이영진(2021)은 탈식민주의가 역사적 분석을 넘어, 현재의 국제 정치 질서속에서 재편되고 있는 통치성의 전략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때, 그 이론은 진정한 탈식민주의적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탈식민주의 연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나아가 변혁하는 하나의 무기로서 여전히 이론이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식민주의 비관주의 극복을 위해 수정된 의미론적 탈식민주의를 제안할 수 있다.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 이항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 혹은 질서-없음에 대한 해방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에 제기되는 비관주의를 극복한다. 하지만, 탈구조주의적(의미론적) 탈식민주의는 개념의 모호성과 실천성 결여라는 비관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과 실천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 (실천) 개념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를 통해 탈식민주의 비관주의 극복을 시도한다. (탈)식민주의 공간 과 공간 실천에 대한 이해는 이상으로 설명한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 논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식민주의 피해 사실이 강조되며 피해

자(피지배자)의 저항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저항의 공간'으로 표현할수 있다. 이는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해석이다. 저항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식민지배 상황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공간을 포함하여 제도적·정치적 독립(해방) 이후에 발생하는 저항적 실천의 무대로써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샤프, 2011; 정희선, 2013; 김재철, 2018). 저항의 공간에서는 스스로를 '피해자(민족, 국가)'로 정의하는 개인과 집단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가해자(민족, 국가)'와 가해 사실에 대한 저항적 실천이발견된다. 저항의 공간 실천은 주로 식민주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탈구조주의적(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으로는 양가성에 기반한 모방과 혼성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제3의 공간' 개념이 제안된다(바바, 2012). 의미론적 탈식민주의에서는 식민 상황의 이항대립적 구조를 상정한 (탈)식민주의 공간 해석 및 실천이 거부된다. '제3의 공간' 개념은 바바가 제안하고 구체화시킨 개념으로 그의 주요 탈식민주의 전략인 혼성성이 실천되는 공간이다(이경원, 2011; 바바, 2012). 앞서 (탈)식민주의의 지리를 설명하며 언급했듯이, 식민 권력은 제국 본토 공간의 상상적 지리를 식민지 공간에서 완전히 연출(재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식민 권력은 식민지의 양가적 현실에서 공간에 완전히 재현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식민 권력은 식민지 공간 정형화에 대한 의도와 양가적 현실 사이에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의 공간은 식민 권력의 축적적 전체론과 목적론을 이질화하는 이중적이고 혼성적인 공간으로, 양가성을 활용한 해체적 실천의 공간이다(바바, 2012).

이상으로 탈식민주의의 지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탈식민주의 실천 및 논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서 발견되는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에 대해간략히 논의했다.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은 탈식민주의 연구, 특히 접두어'탈'의 해석과 탈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결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맥락 속에서 설명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 방식의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저항의 공간, 제3의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 2 절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1. 저항의 공간

이전 절에서는 탈식민주의의 지리적 접근 필요성을 설명하고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을 소개했다. 이번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저항의 공간, 제3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란 식민주의의 지리·공간적 결과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민주의 지리(공간)의 복원을 위해 탈식민주의 공간을 만들고 유지(관리, 방문 등)하는 과정 일체를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사례 분석에 활용할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 논쟁과 비관주의를 통해 차례로 설명하고 분석 틀을 제시한다.

먼저 저항의 공간은 식민 권력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이 발생하는 배경적 요인이자 결과이다. 저항의 공간에서는 실천 집단과 실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구분하는 민족주의적 인식이 존재한다. 식민적 상황에서 식민 권력을 대상으로 한 탈식민주의 실천을 계획하고 실천했던 공간을 저항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식민 권력의 눈을 속여 탈식민 투쟁을 모의한 공간은 대표적인 저항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항의 공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장소(공간)을 상실한 피지배자들이 식민 권력들이 자신들의 식민지 지리의 가시성을 위해 단순화시키며 왜곡한 지리의 틈 속에서 형성됐다. 이 공간에서 모의한 탈식민주의 저항 실천이 실행되었던 공간 역시 저항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식민 독립 활동가들은 식민 권력이 조성한 식민지 경관을 파괴하거나 빼앗는 방식으로 탈식민주의 저항의 공간 실천을 전개했다.

이처럼 저항의 공간 실천은 제도적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에서부터 발견 되며, 당시에는 보편적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방식으로 이해됐다. 제도적 식민주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식민주의를 작동시키는 사람(지배자, 가해 자)과 식민적 경관은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발견된다. 이처럼 '우리'와 '타자' 를 의식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식민적 제도와 질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탈식민주의 실천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이항대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이경원, 2011). 즉, 식민적 상황에서 탈식민주의 실천은 식민주의 가해자(타자)를 향한 '우리'의 저항과 '우리'의 저항을 위한 민족적 정체성이 강조된다. 여기서 탈식민주의 실천 행위자들은 식민 지배이전의 유능하고 단결된 민족의 존재를 상상하며 자신들의 실천에서 재현하고자 한다(앤더슨, 2018).

저항의 공간은 제도적 독립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형성됐다. 제도 적으로 식민지 억압에서 벗어난 피해자들은 과거의 식민주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거나 신식민적 피해에 저항하기 위해 저항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 로 인해 조성되는 저항의 공간은 피해 사실을 강조하며 과거의 식민주의 가 해자(국가)를 지목한다. 이 공간은 식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을 탈식민주의 저항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조성되거나, 새로운 공간에서 조성되기도 한다. 한편, 독립 이후 독립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국가를 건설하는 국가가 저항의 공간 형성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독립 국가들은 국민 국가 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탈식민주의 실천을 강조했다(이경원, 1998; 앤더슨, 2018). 독립 이전 식민 지배 속에서 피지배자들(민족)에게 식민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유용한 전략이었던 민족주의적 탈식민주의 실 천은 단결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데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경원, 1998; 2011; 무어-길버트, 2003; 스콧, 2010). 독립 국가의 지도 자들은 국가 구성원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 식민주의 억압으로 인한 상처(피해)를 극복하고 주체적이고 풍요로운 국민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 공간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저항의 공간과 같이 민 족주의적 저항 정신과 함께 국민 국가의 이데올로기도 동시에 발견된다(샤 프, 2011; 앤더슨, 2018).

이처럼 저항의 공간에서는 '우리'와 '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단일한 가치적 특성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식민지 피해에 대한 저항의 공간은 식 민지 억압과 탈식민주의 실천이 있었던 국가(지역)에서 규모와 형식 측면에 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며, 앞서 언급한 식민주의 공간을 없애거나 식민적 피해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여 전시한 한국의 탈식민주의 공간의 두 사례(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서대문형무소역사관)는 이와 같은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저항의 공간 실천 사례로는 라이베리아(Republic of Liberia)의 건국과 같이 새로운 독립 국가의 탄생을 제시할 수 있다(Whyte, 2016). 이처럼 저항의 공간에서는 식민주의 이항대립 구도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피해자(피지배자)로 규정하는 행위자들이 실천을 주도한다. 식민주의 이항대립 구도를 전제한 피해자의 저항이 실천된다는 점에서 반식민적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저항의 공간에서는 주로 특정한 실천 방식이 존재하며 이는 참여자들에게 요구된다.

저항의 공간 실천이 식민주의 과거와의 단절을 추구하고 식민적 관계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실천은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실천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실천 방식은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연구로부터 비판받기 이전까지 유일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배적인 탈식민주의 인식이자 실천 방식이었다(간디, 2000).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해방적 담론이기보다 식민주의 질서를 연장시킬 뿐이라는 비관주의가 제기된다(이경원, 2011). 저항의 공간실천에서는 식민주의 억압(피해) 사실이 강조되고 탈식민주의 실천 주체와타인(식민 권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반식민적 저항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식민주의 이항대립으로 상징되는 서구 근대성의 논리를 그대로답습하는 인식의 결과로써,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 역설적으로 식민주의적질서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받는다(간디, 2000). 가해자를향한 피해자들의 저항적 실천은 식민 권력이 식민 상황에서 상정했던 정형화된 지배-피지배 구조를 피해 당사자(민족)들이 스스로 답습하는 의미이기때무이다.

이처럼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은 비관주의로부터 비판받지만, 탈식민주의 실천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전략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최근 에도 민족주의적인 탈식민주의 인식 및 (공간) 실천이 수행되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는데, 한국의 사례로는 일본과의 경제·무역·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때 한국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제시할 수 있다(이지원, 2020). 이 사례에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일본 제품 판매 공간과 한국에서 이른바 '애국 마케팅'의 공간 등을 저항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탈식민주의 실천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탈식민주의 실천에서 민족주의적 인식의 전략적 유효성을 옹호하는 입장으로부터 비관주의적 비판에 대해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에서 민족주의적 단결은 필수적이거나, 적어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반박이 존재한다(이경원, 2011; 무어-길버트, 2003). 이는 '민족주의'가 탈식민주의 실천에서 적어도 과도기적·임시적으로 효과적인 실천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스피박은 '전략적 본질론(Strategic Essentialism)'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2. 제3의 공간

아래에서는 탈구조주의적(의미론적) 탈식민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공간 실천 개념으로, 본 연구 사례 분석에 활용하는 혼성성5)과 제3의 공간에 대해소개한다. 혼성성은 바바의 주요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이 전략이 수행되는 배경이자 결과인 공간으로 '제3의 공간'을 제안한다. 혼성성은 파농과 사이드 등 바바 이전의 탈식민주의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파농은 식민적 상황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주로 피지배자) 복잡하고 다원적인 심리·정신적 상태를 언급하며, 사이드는 본질적인 특성(정체성)을 거부하는 탈식민주의 이론을 제시하며 혼성성의 개념을 드러낸다(간디, 2000). 그러나 여기서 혼성성은 탈식민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이자 실천의 전략이라기보다 식민 상황을설명하거나 탈식민, 반식민 실천의 한 특성으로 언급되었다. 혼성성은 이후바바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와서 탈식민주의 개념으로 구체화·체계화되어 탈식민주의의 이론과 실천 전략으로 제시됐다(Moore-Gilbert, 1997; 바바, 2012).

⁵⁾ 바바의 탈식민주의 이론 전략인 Hybridity는 그의 저서인 〈문화의 위치〉에서 주요 개념으로 소개된다(바바, 2012). 한국에서는 '혼성성', '혼종성' 등으로 번역되며, 본 연구에서는 '혼성성'으로 표현한다.

바바는 식민주의 시대와 제도적 독립 이후 현대의 관계를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파악하고 이 시대를 '계속되는 신식민적 현재'로 규정한다(간디, 2000). 이러한 규정은 현재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주장(탈식민주의 이론 및 실천)이 해방 이후의 논리가 아닌 '지금-여기에서' 식민 저항의 논리로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바바는 자신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준 파농과 사이드의 논의 저변에 깔린 이항대립 체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바는 식민지배의 이분법적 분할을 넘나드는 상호의존성과 타협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다중적이고 모순적인 형태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무어-길버트, 2003). 이러한 바바의 주장은 식민적 양가성(Colonial Ambivalence)이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이경원, 1998). 그의 주장에서 상호의존적 관계에 의한 탈식민적 상황은 식민지 피지배자에 집중하여 지배자의 심리적 경험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파농의 모델을 역전시키고 식민적 관계를 주인-노예의 대립적 구조로 설명하는 사이드의 모델에 의문을 제기한다.

바바에게 식민 권력과 식민적 상황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설정된다. 식민적 상황의 불안정성은 식민 권력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식민 권력은 고정되고 예측가능한, 정형화된 피지배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러나 피지배자는 이러한 요구에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거부하며 지배자가 예상하는 식민적 관계에 혼란을 일으킨다. 지배자의 요구에 피지배자가 거부하며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배자가 경험하는 혼란이 자명하다면, 피지배자가 순응하며 발생하는 식민적 상황에서는 '모방'을 통해 식민적 혼란이 설명된다. 피지배자들의 지배자를 향한(비)자발적 모방은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배자의 요구로부터 차이가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지배자의 의도(요구)와 현실 사이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바바, 2012). 이처럼 '거의 같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는 않은' 피지배자의 모습은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닮은꼴인 동시에 위협'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식민 지배자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와해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된다(이경원, 1998).

여기서 피지배자의 태도는 의도적인 반식민 전략이기도 하지만, 대게는

무의식적인 일상적 태도이다. 이경원(1998)은 피지배자의 동화 과정에서 파생된 무의식적 부산물을 '모방'으로, 피지배자의 저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지배자가 전복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전략을 '혼성'으로 구분했다. 무의식적인 모방과 의도적인 혼성으로 인해 식민지 지배 권력은 불안을 경험한다. 즉, 바바에 의해 설정된 식민적 공간(상황)은 식민적 환상과 공포를 모순적으로 갖고 있는, 쾌락과 불안의 잠재적인 균열의 공간이 된다(간디, 2000). 개인을 계측 가능하도록 지배하려는 식민지 담론에서 주체화 과정의 일차적요소인 정형화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식민자와 피식민자 모두에게 불안을 야기한다. 이처럼 정형화의 오류로 인해 식민 권력이 경험하는 불안은 앞서 식민주의의 지리적 결과로 논의한 식민지 경관 변화와 가시성을 위한지도 단순화 등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식민 권력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낯선 지리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으며, 이는 피식민 지리와 행위자들의 모방과 혼성성을 통해 극대화된다. 바바는 여기에서 탈식민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바바는 전복의 전략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의 긴장상태라고 주장한다(바바, 2012). 혼성성은 이 지점에서 바바의 구체적 식민 상황의 전복 전략으로 제시된다. 즉, 혼성성은 식민 권력이 식민 상황에서 상정하고자하는 이항대립적 정형에 맞서는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를 차이들이 벌이는 교섭의 장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식민 권력은 반복되는 혼란과 실패를 경험한다(박민수, 2015). 혼성성은 또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혼합하고 의미의 다양한 측면을 생산해내며 누구도 예상할수 없는 힘을 통해 식민적 재현과 정치적인 적대심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과정을 포함한다(이소희, 2001). 이를 통해 혼란과 긴장의 식민적 상황에서 정형화의 닫힌 공간과 동질적 시간에 틈새가 생겨나며 식민 상황 이전에 존재하던 시대와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이 복귀한다(김용규, 2005). 식민 권력이 피지배자에게 정형화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리기 마련이다(박민수 2015). 나아가 식민지에서 조우와 혼성이 일상화되면, 문화들 간의 틈새와 사이가 새로운 문화적 초점으로 부각되며 문화들 간의 횡단과 혼종은 그동안 견고해보이는 식민 문화(권력)를 마침내 무력화시킨

다(김용규, 2005). 이것이 바바가 모방과 혼성성의 탈식민주의 실천을 통해기대하는 식민적 상황의 극복 결론이다.

이와 같은 바바의 탈식민주의 연구는 식민주의와의 단절, 혹은 이항대립 구조의 전복을 추구하는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연구 및 실천과는 차이가 있 다. 혼성성을 통한 바바의 탈식민 전략은 재현적 폭력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보다 오히려 '재현적 폭력을 그대로 두기, 이로 인한 혼란에 스스로 빠져들 게 하기'로 이해할 수 있다. 바바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혼성성은 혼란과 불 안 속에 식민지배 질서(이항대립 구도)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식민주의 너머(의미론적 탈식민주의)를 논의하는 해방적 전략이다. 이와 같은 의미론 적 탈식민주의 연구와 전략을 통해 일부 탈식민주의 연구는 식민주의 너머 의 질서를 상상할 수 없다는 탈식민주의에 제기된 주요 비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은 폭넓은 반식민 연대 세력들의 임기응변적 결성에 의한 비폭력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이다(간디, 2000). Ghandi(1998)에 따르면 혼성성은 탈식민 전략이기 이전에 인간 존재(실체)의 특성이다. 윤리적 행위 주체의 인식과 행동은 단일한 지침에서 나오기보다 인간 삶의 우발성과 모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행위 주체의 판단은 상호 주관적 의무속에서 혼성적으로 형성된다. Ghandi(1998)는 이러한 이해에 따라 탈식민전략으로서 혼성성은 식민적 상황을 비폭력적으로 독해하고 제도화된 정형화의 수단에 대항하기 위한 문명, 민족, 지역 간 유토피아적 동맹을 구상할 수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구상은 폭넓은 연대(동맹)를 통한 효과적인 (물질적) 저항을 구상하게 한다.

바바(2012)는 탈식민 전략으로 혼성성이 실천되는 무대이자 촉진하는 요 인으로 공간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제3의 공간'이다. 제3의 공간은 이질 적인 문화적 요소들의 융해, 혼합,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이소희, 2001). 앞서 설명했듯이 바바는 식민 지배자(제국의 문화)와 피지배자(식민 지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양가적이고 혼성적인 식민 공간의 기능과 특성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결코 통일적이고 확정적인 경계와 함께 전승되고 유지 되지 않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을 정형화·동질화하려는 매커니즘을 비 판한다(김용규, 2005).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을 실현시키는 공간, 즉 복잡한 문화가 공존하는 중간지대를 제3의 공간으로 제시한다(김용규, 2005). 따라서 제3의 공간은 다양한 문화의 시간성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서로 겹치고 충돌하는, 문화가 문화적 차이들이 벌이는 교섭의 장이다(박민수, 2015).

제3의 공간의 특징과 역할은 이론적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제3의 공간에서는 문화적 차이 간의 투명한 번역이 이루어지기보다 차이의 대면이일상적으로 벌어진다(바바, 2012). 따라서 문화들이 함께 만나는 제3의 공간에서는 상호문화적 교류의 역학을 발견할 수 있다(무어-길버트, 2003). 제3의 공간은 모방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 사이의 공간으로(바바, 2012), 제3의 공간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들이 협상을 통해경계선상 특유의 긴장이 형성된다(이경원, 2011). 식민지적 상황에서 권력은 스스로의 모순된 진술들 속에서 종속적이게 되고, 이러한 역해게모니의 상황 속에서 식민지적 역설의 시간은 제3의 공간에서 작용한다(바바, 2012). 바바(2012)에 따르면 서로 인접해 있으며 부가적이지만, 목적론적으로 축적적이거나 변증법적이지 않은 문화적 지식들의 절합을 위한 보충적 공간들을열어야 하며, 이 공간이 제3의 공간이다.

이와 같은 제3의 공간을 개념을 설명하기위해 다양한 은유적 표현들이 활용되었다. 제3의 공간을 설명하는 은유적 표현들은 바바 자신과 이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로부터 제시됐다. '사이(in-between) 공간, 틈새, 다리, 중간지대, 접경지대, 낀 공간'등의 표현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의 연결과 절합이 일어나는 배경으로써 공간적 특성이 강조된다(박민수, 2015; 이경원, 2011; 최종천, 2011; 무어-길버트, 2003).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위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좀처럼 녹지 않는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공간'등이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현대 다문화 국가와 사회를 설명하는 표현인 '용광로'나 '샐러드 그릇(bowl)'등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이경원, 2011). 또한 제3의 공간은 문화적 차이들의 연결이 발생하는 배경을 넘어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넘어서(beyond)의 장소, 지금-여기에서의 간섭의 공간, 수정의 시간에 속한 공간'등의 은유적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바바, 2012). 이처럼 제3의 공간은 은유적 표현

들을 통해 차이들의 연결과 공존, 교섭의 배경이자 중개적 역할을 하는 특성이 설명되다.

문화적 혼성성과 혼성적 실천이 강조되는 제3의 공간은 탈식민주의 공간실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3의 공간이 유용한 탈식민주의 전략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식민주의 공간 자체가 혼성적이라는 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식민 지배와 통제는 식민 지역의 문화적 실천에 따라 상이한양상으로 전개되었다(샤프, 2011). 따라서 식민 담론 내부에서는 차이와 다양성이 발견되며, 식민 권력은 불확정적이며 유동적이 된다(이경원, 2011). 이는 앞서 설명한 식민 공간을 식민주의적 권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공간이 아니라 불확정적이고 불투명한 양가성과 혼종성에 의해 생산되는 불안정한 공간이라는 바바의 설정과 연결된다. 이처럼 불안정한 식민주의 공간에서 식민 지배 권력이 추구하는 안정성을 뒤흔드는 혼종성과 양가성이 실현되는 제3의 공간은 위협적인 탈식민적 저항이다(김용규, 2005).

혼성성을 통한 바바의 탈식민주의 전략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가시화하는 것이다. 제3의 공간은 이러한 바바의 전략 속에서 구체적인 저항의실천성(수행성)을 담지하고 있다(이소희, 2001). 동시에 발생하고 관찰되는이중적으로 양가적인 문화적 차이들은 식민지적 언표 작용 사이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낸다(바바, 2012). 이렇게 찾아낸 시간과 공간은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고 '축하'하는 행위자들의 실천 무대가 된다(샤프, 2011). 거대 서사와 정형화에 포섭되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문화와 특히 소수자 담론들이 제3의 공간에서 조우하며 그 담론들간의 제휴와 연대의 가능성이 개진된다(이경원, 2011). 이처럼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행위자는 소수자로 명명된 정태적이고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소수자 되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역동적 주체이다(이경원, 2011). 이들은 문화적 차이를 통해 갈등과 투쟁, 그리고 차별을 협상하며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 공간을 구성한다(최종천, 2011). 이처럼 억압적 정형화로 인해 단일한 정체성을 강요받던 다양한 '소수자들'은 제3의 공간에서 이와 같은 식민적 지배 권력에 맞서 주변과 틈새의 전략을 창조적으로 실천한다(김용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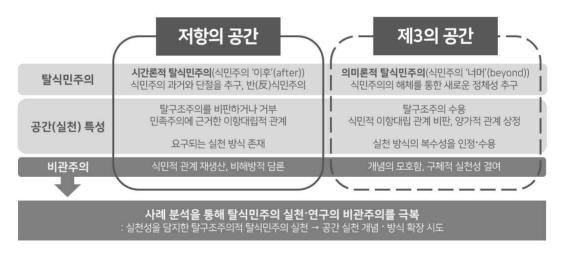
이상으로 살펴본 제3의 공간의 특성과 역할을 통해 주목할 점은 제3의

공간이 탈식민, 혹은 반식민의 전략으로써 유용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탈식민적 상황에서 일상적 문화 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제3의 공간이 내포한 '긴장감'으로부터 생성되는데, 이 긴장감은 식민주의 공간의 정형화에 불안을 야기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이중의 역할을 한다. 제3의 공간은 일방적 권력과 지배의 공간이 아니라 항상적 교섭과 타협, 그리고 경합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이 곳의 전지구적 문화와 민족적 문화들로 구성된 비동시적인 시간성들은 제3의 공간을 개방한다(김용규, 2005). 공통점을 찾을수 없는 차이들이 제3의 공간에서 협상을 벌이며 고유의 경계적인 긴장을 창조하고 이 긴장은 계급 범주의 존재론적 우선성을 약화시키고 타자성과 마주침으로 사회적 차이의 정치학을 출현시킨다(김용규, 2005; 이소희, 2001). 제3의 공간의 '서로 다른 맥락 속의 행위자'들은 우발적인 경계들을서로 엮어내 '부분적인 연결망'으로 전환적인 정체성을 창출한다(이소희, 2001). 즉, 제3의 공간에서는 단일한 방식의 실천보다는 실천 방식의 복수성이 인정되고 용인된다.

이처럼 제3의 공간의 대안적인 탈식민 수행성에도 불구하고 제3의 공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제3의 공간에 대한 주된 비판은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되어있다(박민수, 2011). 제3의 공간이 현실적 공간인지, 아니면 경험형식이자 실존형식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소희, 2001; 박민수, 2011; 이경원, 1998).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제3의 공간은 이 공간을 구조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책임있는 주체가 구성되기 어렵고, 제3의 공간 개념을 받아들이더라도 문화들 간의 혼성적 성격으로 인해 내부의 문화적 역동성을 주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김용규, 2005). 바바의 전략(혼성성)에서 주장하는 양가성이 모호성으로 인식될 위험 속에 식민 상황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는 잊혀진다(이경원, 1998). 이처럼 바바의 탈식민주의 이론은 정치를 지나치게 몰역사적으로 텍스트화하여 (신)식민적 상황에서 여전히 구체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피식민자에게 혼성성은 공허한 담론적 전략일 뿐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이경원, 1998). 따라서 제3의 공간 실천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판(비관주의)에 반박하기 위해 제3의

공간의 구체성과 실천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혼성성의 윤리로 설명한 비폭력적이고 폭넓은 저항 방식은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번 절에서 설명한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은 탈식민주의의 지리적 접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으로 논의한 두 공간 실천 개념을 사례 공간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 실천을 상징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각각에 제기되는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가능성 탐색에 관점에서 논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연구에서 공간 실천 개념의 논의 범위와 공간 실천 방식의 범위 확장을 동시에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저항의 공간과 제3의 공간 개념은 본 연구에서사례를 분석하는 분석 개념(도구)이자 실천 전략으로 논의된다. 문헌 연구에따른 연구 분석 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3] 연구 분석 틀

제 3 장 사례 소개

제 1 절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역사

이번 장은 본 연구의 사례 공간을 소개하는 장으로, 먼저 제1절에서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과 공간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식민주의와 제도(정치)적 독립 역사를 설명한다. 역사적 경험과 해석은 역사에기반한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준다. 탈식민주의 인식과 공간 실천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관련 역사와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역사 해석을 분석의 배경맥락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공간 실천과 공간 실천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역사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절에서 소개한 관련 역사는 이후 본론(제4-5장)에서 공간 실천의 배경맥락으로 언급된다. 방대한관련 자료와 해석 중 이번 절에서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분석하는 본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역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다수의 자료를 통해 여러차례 검증된 역사적 해석을 활용한다.

1.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역사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은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한다. 이후 4년간 인도네시아를 재점령하려는 네덜란드에 대항하여 독립전쟁(독립 혁명, Indonesian National Revolution)을 치르고 1949년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 인도네시아의 식민주의 역사는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이하 VOC)를 설립한 1602년을 기준으로 보면 1945년 독립 선언까지 약 340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16세기 중반 이후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현재 동남아시아 해양부국가6)들이 위치한 지역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서양 열강들의 주도권 다툼

이 치열했다. 당시 신흥 해양 강국이었던 네덜란드의 VOC는 1596년 인도 네시아에 처음 도착한 이후 1602년 정식으로 VOC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식민지 경영을 시작했다. VOC는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의 공급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바섬 서부 반뜬(Banten) 왕국의 세력 다툼을 활용했다(소병국, 2020).

VOC의 진출 이전 인도네시아에는 주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종교를 기반으로 한 크고 작은 왕국들이 존재했으며, 이 중에는 해상 무역을 통해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왕국도 존재했다(소병국, 2020).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 등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있었고, 1619년 네덜란드는 영국 세력을 몰아내고 자바섬에 바타비아(Batavia)를 건설했다. 진출 초기 VOC는 바타비아를 근거지로 삼아 해상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윤 극대화에 집중했다(전제성, 2003). 이처럼 경영성과를 내기에 유리한 상황에도 VOC는 재정난과 부패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다 파산 위기에 처한다. 1800년대 초반 네덜란드는 결국 VOC의 빚을 떠안고 인도네시아를 직할 식민지화한다. 당시 네덜란드는 1795년 이후 프랑스에 예속되어있었고,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직접 통치는 영국과 식민지경쟁에 한창이던 프랑스의 후견 속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1800년대 초반영국과 프랑스의 세력 다툼 속에 잠시 영국이 자바를 점령하기도 하지만,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해 네덜란드 왕정이 복고되며 영국은 바타비아를 네덜란드에 반환한다.

이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식민지 무역 활성화를 위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했고,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현지의 농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소병국, 2020). 1824년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전쟁 끝에 영란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경쟁국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후 네덜란드는 욕야카르타

⁶⁾ 동남아시아 국가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 가입한 10개국이라 할 때, 이 국가들은 크게 대륙부 5개국(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해양부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으로 구분된다.

(Yogyakarta) 왕국의 디포네고로(Diponegoro) 왕자를 중심으로 한 봉기로 상징되는 1825년부터 1830년까지 진행된 자바전쟁을 진압하고 1830년대에 는 자바 전역에 대한 직접 통치권을 확고히 한다(전제성, 2003).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직할 식민지화한 이후 초반의 통치 방식은 특히 가혹했다고 평가 받는다. 악명 높은 강제 경작 제도가 이를 상징하는데, 이로 인해 자바의 농민들은 병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많은 수는 이로 인해 사망했다(소병국, 2020). 반면 이 시기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재정 상태가 개선되었고 본국의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소병국, 2020). 인도네시아로 부터 열대작물, 고무, 원유 등을 수탈하여 무역 수익을 극대화한 네덜란드는 1800년대 후반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영토확장 욕구와 경쟁에 영향을 받아 현재 인도네시아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통치권을 확장해나간다(전제성, 2003). 이후 농촌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가혹한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방식에 대한 저항과 이 저항이 네덜란드 본국에도 알려지며야만적인 식민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로 인해 강제 경작 제도는 폐지되고 20세기에는 인도주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윤리정책'이 시행된다(전제성, 2003; 양승윤, 2014). 이와 같은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는 인도네시아 군도 전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른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배경에 있었다(전제성, 2003).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자바와 비(非)자바의 인구, 경제, 복지 등의 격차가 커지며 윤리정책으로 상징되는 네덜란드의 이중적인고 기만적인 식민통치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소병국, 2020). 네덜란드의 지배를받기 이전 인도네시아는 각기 다른 여러 왕국으로 존재했던 탓에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두드러진 전민족적 독립 운동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종교(이슬람)를 매개로 시작된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이 시작되어 20세기 초반까지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이슬람등에 영향을 받아 교육, 정당 활동 등을 통해 독립 운동을 펼쳤다(소병국, 2020). 한편, 이 시기 독립 운동 또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저항은 모두 전민족적 반식민투쟁으로 일반화하기보다 지역 단위의 국지적 항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송승원, 2014).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인들의 독립을 위한 저항과 네덜란드의 진압과 회유가 반복되던 인도네시아에서는 20세기 중반 식민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발생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력이 강해진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일본에게 선전포고했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1942년부터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점령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에집중하느라 인도네시아에는 소수의 필수적인 병력만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비교적 손쉽게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수 있었다(소병국, 2020). 일본의 인도네시아 점령으로 오랜 시간 지속된 네덜란드의 식민지배가 일시에 종식되었다(소병국, 2020). 이로 인해 일본은 이 지역에서 신앙처럼 여겨지던 백인불패(白人不敗)의 신화를 깼다(양승윤, 1998).

인도네시아를 두고 발생한 네덜란드와 일본의 전쟁에서 인도네시아인들 중 다수는 일본군을 네덜란드 식민통치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는 해방자로 환영했다. 일본군에 의해 그동안 식민통치자였던 네덜란드인들의 체면과 위신 추락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뚜르, 2019). 일본은 서구열강으로부터 동남아시아를 해방시키겠다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주장했고, 이 지역의 독립을 바라던 일부 민족주의자들조차도 이 주장에 경도되어 아시아의 새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했다(양승윤, 1998; 소병국, 2020). 그러나 일본의 인도네시아 점령은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전쟁물자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에 있었으며(양승윤, 1998), 일본의 식민통치 행위는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다(뚜르, 2019). 이러한 일본의 점령 방식에 대해 '300년이 넘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 기간보다 일본의 상대적으로 짧은 점령 기간(약 3년 반)이 더 가혹했다'는 역사적 평가도 존재한다.

일본의 인도네시아 점령은 일본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하며 끝났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언하지만, 영국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재침략한

다.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독립 세력과 맺은 전략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1945년 패망 이후에도 영국과 네덜란드의 재침략 시도를 저지하려는 민족주의 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일부에게 이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겠다(대동아공영론)'는 일본의 식민주의 논리를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점령 기간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가 형성된다(전제성,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상으로 설명한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역사(네덜란드 식민지배 기간, 일본의 점령 기간)를 인도네시아 식민주의를 설명하는 배경 기간으로 설정한다([그림 3] 참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직할식민지화하기이전인 17-18세기를 식민기로 보는 것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송승원, 2014), VOC의 식민지 경영 또한 식민주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인도네시아 역사 구분과 같이, 이 시기 또한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역사에 포함한다. 또한 이외에도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외부 세력의 침략 시도는 여러 차례 존재했지만, 이상으로 서술한 바와 같이식민 통치 및 점령한 범위와 기간, 현재 인도네시아 사회에 미친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으로 설명한 두 시기(네덜란드 식민 지배, 일본 점령 기간)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식민주의 역사로 제시한다. 이와같은 식민주의 역사 기간 설정은 본 연구의 사례 공간 이해에도 유용하다. 다음 절에서 소개하고 본론(제4-5장)에서 분석하는 두 사례 공간 (실천)은 각각 네덜란드, 일본 식민주의 시기를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림 4]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기간 구분

2.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이후 역사

아래에서는 인돈네시아 독립 과정과 독립 이후(제도적 식민주의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통해 독립 이후 현재까지 탈식민주 의 논의와 실천이 어떤 과정과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소개한다. 이 기간 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탈 식민주의 공간 실천으로 이어진다. 독립 직후 인도네시아의 탈식민화 과정 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박은홍, 2010; Nordholt, 2011). 1945 일본이 패망하며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맞이한다. 수카르노(Haji Mohammad Sukarno, 이하 수카르노)로 대표되는 주요 민족주의 독립 운 동 지도자들은 갑작스러운 독립 국가 선언으로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위탁 통치 등을 통해 일정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는 단 계적인 독립을 계획했다(배동선, 2018; Sluimers, 1996). 이는 네덜란드 식 민 통치와 일본의 점령 이전에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고 인 종, 종교, 언어 등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여러 왕국으로 존재했기 때 문에 하나의 독립 국가 수립을 위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 추 정된다(배동선, 2018; 소병국, 2020)7). 그러나 개혁적이며 독립 방법론에 있어 다소 급진적인 성향을 보인 인도네시아 청년 독립 단체의 강력한 요 구에 의해 1945년 8월 17일 주요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수카르노와 하타 (Mohammad Hatta, 이하 하타) 등은 독립을 선언한다(배동선, 2018).

그러나 1945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물러나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연방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다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다. 이 과정에서 영국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군과 영국군을 상대로 다시 독립 전쟁(혁명)을 펼친다(Sluimers, 1996). 그러나 전후 세계 질서를 선도하던 미국과 UN의 중재와 압력으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한 협상

⁷⁾ VOC 진출 이전 마자빠힛(Majapahit) 시대에 현재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포한하는 지역이 단일한 정치체가 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소병국, 2020), 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왕국이나 국가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으며, 종족, 언어, 종교, 지역 등의 차이가 존재했다.

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1949년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룬다(양승윤, 2014; 배동선, 2018).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바탕에 네덜란드 재점령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무장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소병국, 2020). 마침내 긴 식민지배와 점령 기간, 그리고 독립 전쟁 끝에 인도네시아는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난다. 이후 현재의 국회격인 중앙 인도네시아 국가위원회(Central Indonesian National Committee, KNIP)에서 수카르노와 하타는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된다.

수카르노는 1927년 설립된 최초의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 정치 세력(정당)으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 국민당(Partai Nasional Indonesia, 이하 PNI) 활동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다. PNI와 수카르노가 이 활동으로 당시 피식민 인도네시아인들과 식민 지배 국가 네덜란드로부터 주목받은 이유는 PNI가 처음으로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민족 정체성으로 상상했기 때문이다(전제성, 2003). PNI 활동을 통해 발견되는 수카르노의 민족주의적 인식은 독립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된이후 국민 국가 건설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1950~60년대 제3세계주의⁸⁾를 이끌었던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는 반식민주의를 상징했다(박은홍, 2010). 그러나 수카르노 행정부는 독립 국가의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는 주로 인도네시아 내부의 차이와 갈등과 관련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바와 비(非)자바의 갈등, 정치·경제적 국가 운영 이념으로써 공산주의를 둘러싼 갈등, 의회주의와 반의회주의 갈등 등이다(박은홍,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수카르노는 '다양성속의 통일'을 의미하는 하는 빤짜실라(Pancasila)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다(박은홍, 2010). 인도네시아는 종교, 인종, 언어 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으로 구성되어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빤짜실라는 통일된 단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이자 국가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변해철, 2012). '인

^{8) &#}x27;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들이 냉전 구도를 깨기 위해 주요 강대국 연합에 공식적으로 속하지 않거나 이에 대항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조직, 비동맹주의(Non-aligned Movement)로도 알려져있으며, 반둥 회의(Bandung Conference 또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Asian – African Conference))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도네시아 민족'의 정신적 원칙의 토대인 빤짜실라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각종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변해철, 2012). 빤짜실라는 1945년의 인도네시아 독립 및 건국헌법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독립 투쟁을 상징하는 이념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빤짜실라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간에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변해철, 2012).

빤짜실라와 함께 수카르노 시대를 상징하는 정치 체제는 교도 민주주의 (Guided Democracy)인데,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개편하여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여운경, 2017). 수카르노는 이 체제를 인도네시아 형편에 맞는 체제라고 주장하며 '혁명'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수카르노는 네덜란드 식민지배에 맞선 독립 지도자답게 서구의 가치와 체제로부터 벗어나 아시아, 혹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했으며, 따라서 그의 주장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었다 (여운경, 2017). 박은홍(2015)은 수카르노 대통령이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가부장제를 동원한 민족주의적 발상이며 이는 서구에 기원을 두는 민족국가의 반복적 재현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수카르노 초대 정부는 인도네시아 고유의 정체성과 정치·사회 체제를 구상·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Moser, 2008; 변해철, 2012; 여운경, 2017), 국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며 한편으로는 통일을 지향해야하는 목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Moser, 2008; Nordholt, 2011). 또한 당시 인도네시아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수카르노 정부가 의도하는 독립 국가(민족주의적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여운경, 2017). 1965년 당시 군부 세력이었던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 이하 수하르토)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군사 정변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제2대 대통령이 된 수하르토는 수카르노 시대를 구질서(Orde Lama, Old Order)로 규정하며 신질서(Orde Baru, New Order)를 내세웠는데, 이는 서구에 맞서는 독립(탈식민) 정체성을 발견하여 적용하고

자 했던 수카르노 정부의 민족주의적 정책과는 달리, 친미·친서구 정책과 개발과 경제적 발전에 집중하는 국가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여운경, 2017).

수카르노 초대 정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정부 역시 실정과 아시아 경제 위기로 1990년대 후반 정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1998년 폭동(Kerusuhan Mei 1998)으로 이어지며 결국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낳았다(서지원·김형준, 2017; 윤진표·제대식, 2000). 이후 인도네시아는 과도 정부를 거쳐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차츰 정치·제도적 민주주의가정착하고, 자원과 인구를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며 현재에 이르렀다(최경희 외, 2019). 이상의 소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독립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 정치·경제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식민 지배 및 점령 기간에 대한해석과 역사적 의미 설정, 그리고 이에 따른 독립된 국가·사회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경험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독립 직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하고 이후 재침략을 시도했던 네덜란드를 향한 반감 정서가 형성되었으며(여운경, 2018),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활용됐다(송승원, 2014). 그러나 송승원(2014)에 따르면, 당시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는 식민주의 국가를 향한 반감 정서를 부축이며 단일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라기보다이슬람, 공산주의, 시장 경제,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아우르는 '용광로'와 같이 이해해야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독립 이후 형성된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는 제도적으로 식민주의에서 벗어난 독립 국가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민족주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배타성이 발견되는 민족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식민주의 이후 인도네시아 역사의 특징은 혼성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정체성)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이후 문화적(종족·종교·언어) 혼성성에 더해 식민주의 역사 이해에서 식민 지배 국가(특히 일본)에 대한 평가와 독립 이후 서구의 정치·경제제도 수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혼성적으로 분출되었다. 독립 인도네시아는 이를 단일한 정체성과 제도, 질서 등으로 통합시키기보다 각각의 다양성

을 인정하고 숙의하는 방식의 공존을 도모했고 이는 건국 정신이자 인도네시아 주요 국가 이념인 빤짜실라에 잘 표현된다. 이는 독립 이후 식민주의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대대적인 식민주의 청산과 이를 통한 독립 국가의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수의 피식민 경험 국가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한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상황은 본론에서 공간 실천을 분석하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설명에 활용된다.

제 2 절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이번 절에서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인 파타힐라 광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조성 시도를 본 연구의 사례 공간으로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두 사례 공간의 위치와 조성 목적, 현황 등을 소개한다. 이번 절에서 소개되는 두 사례 공간은 인도네시아 식민주의 역사에서 식민주의 피해 사실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상반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결과를 갖는 두 공간이다. 또한 두 사례 공간은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과정과 결과를 실천 행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관찰·분석할 수 있으며, 공간과 공간 실천이 상징하는 바를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번 절에서 소개하는 두 사례 공간은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사례 공간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이라 이해할 수 있다.

1. 파타힐라 광장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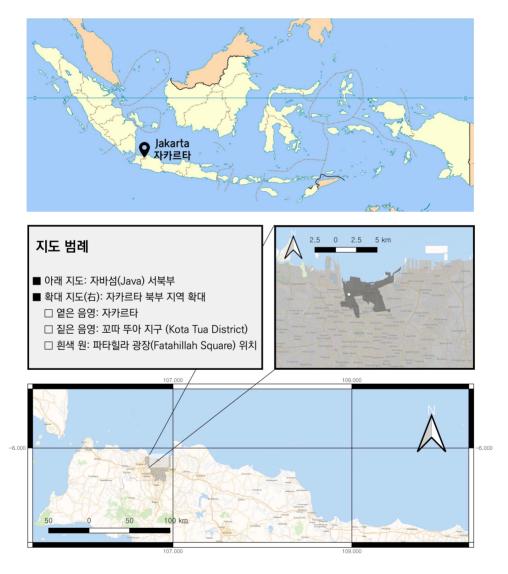
VOC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 서북부 해안 가를 중심으로 진출하였다. 당시 이 지역은 순다(Sunda) 왕국의 주요 무역 항(순다 끌라빠 항구, Sunda Kelapa)이었다. 현재 자카르타 명칭의 기원이되는 명칭인 '자야카르타(Jayakarta)'로 불리던 이 지역의 명칭은 VOC 진

⁹⁾ 이 절에서 설명하는 꼬따 뚜아와 파타힐라에 대한 설명 중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는 내용은 아래 두 국제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기반한다.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hley Robertson, Alisa Sutanudjaja, Andrew Henderson, Maria Inggita Kusalasari(ed)), (2014), Analytical study of Kota Tua, Jakarta

[■]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UCLG Learning Team(Ed)), (2017), Revita lizing Cultural Heritage; A comprehensive urban plan to revitalize Kota Tua in Jakarta 이상의 두 보고서는 이 지역이 재생사업을 통해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인식됨에 따라 이 지역을 국제적으로 설명·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출 이후 '바타비아(Batavia)'로 변경된다. 바타비아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은 운하 건설과 네덜란드식 건축 양식 및 도시 계획 등을 활용하여 바타비아를 최대한 네덜란드와 유사한 경관과 생활환경을 재현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17세기 이후 바타비아는 유럽 도시의 경관이 재현되며 '열대의 네덜란드'라 불리기도 했다(여운경, 2018). VOC 진출 이후 바타비아에는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무역 회사와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를 위한 행정 기구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며 네덜란드 식민지배 시기를 대표하는 중심지역으로 성장한다.



[그림 5] 꼬따 뚜아 및 파타힐라 광장 위치

VOC와 네덜란드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바타비아의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행정,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Hidayat et el., 2019). 또한 네덜란드는 이 지역을 영국 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가 를 중심으로 요새화했다. 바타비아에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지역 에서 온 이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각각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며 도시 경계는 점차 남부 지역으로 확장된다. 네덜란드는 운하를 건설하고 네덜란 드 건축 양식을 도입하는 등 본국의 도시와 유사한 경관으로 이 지역을 조 성하였고, 이후 경관과 건물 양식은 열대 기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42년 일본이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인도네시아를 점령하 며 이 지역은 점차 쇠퇴했다. 일본은 기존 수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명칭 을 '바타비아'에서 현재 명칭인 '자카르타'로 변경했다. 점령 기간 동안 일본 은 전쟁에 집중하며 이곳의 행정 기관(건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일본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지 역의 건물들은 국영화되었으나 일부 건물들은 허가 없이 불법 창고로 활용 되는 등 계속하여 방치됐다. 이처럼 이 지역은 네덜란드 식민지배, 일본 점 령 기간의 식민주의 경관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이 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의 대상 공간이 됐다.

과거 바타비아 지역의 현재 명칭은 '구시가지(Old city)'라는 의미의 '꼬따 뚜아'로, 2007년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며 공식 명칭으로 지정됐다(Governor's Decree of the Special Capital Region of Jakarta No. 127 Year 2007). 꼬따 뚜아는 자카르타 북부의 약 334 헥타르 면적의 지역으로, 두 개의 행정구역(West Jakarta Municipality(Tamansari and Tambora), North Jakarta Municipality(Penjaringan))에 걸쳐 위치한다. 이중 과거 바타비아의 면적은 약 134 헥타르이며 바타비아 외곽 지역 200 헥타르를 더해 꼬따 뚜아의 경계를 정한 것이다([그림 4] 참고). 꼬따 뚜아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역사 유적지로 사화문화경제적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었지만, 오랜 시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여기에 홍수와 공해, 교통 체증과 접근성 부족, 쓰레기 문제, 범죄 등의 문제가 더해지며 이 지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현재 꼬따 뚜아는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자카르타 역사, 문화,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지역으로 변화했으며, 자카르타의 대표적인도시 브랜딩 사례로 이해된다(Hidayat et el., 2019; Salim·Sustaningrum, 2019). 이 지역의 도시 공간 재생 사업 시도는 1974년부터 시작되지만, 본연구에서는 최근의(2000년대 이후) 재생 사업 과정과 결과에 집중한다. 산발적인 계획들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재생 사업은 창조적 공간조성, 상업 공간 재정비 등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개선 및 확장, 쓰레기 처리 시스템 확충,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도로 조정, 보행자 도로 개선 등이 실시됐다.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은 인도네시아 특별 수도 자카르타 정부(The Government of the Special Capital Region of Jakarta, Daerah Khusus Ibukota(DKI) Jakarta, 이하 자카르타 주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를 통해 재생사업을 지원했다. 2011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이 지역을 국가 관광 장소로 지정했다. 꼬따 뚜아의 보존 및 재생 사업은 여러 관련 법과 시행령,계획 등에 의해 실행됐으며 주요 법과 계획으로는 지방 조정법(Local Regulation) No.9/1999, 2004년 종합 계획(Master Plan), 주지사 조정법(Governor Regulation) No.36/2014 등이 있다. 재생 사업의 주요 목표 중하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이었는데, 자카르타 주정부는이로 인해 이 지역이 세계적 관광지가 되어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2015,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등재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림 6] 도시공간재생사업 전후의 파타힐라 광장

- (상) 1971년 파타힐라 광장(출처: Boy Lawson 촬영, Tropenmuseum 소장),
- (하) 자카르타 관광문화부, 인도네시아 관광청이 발행하는 '자카르타 문화유산(Jakarta Cultural Heritage)'에 소개된 꼬따뚜아와 파타힐라 광장(출처: Department of Tourism and Culture of Jakarta(자카르타 관광문화부), 2019년 발간)

[그림 5]와 같이 19970년대 파타힐라 광장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차고지로 쓰일만큼 그 문화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활용되지 못한 채 방 치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방)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그림 5]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관광 안내 홍보 책자에서 꼬따 뚜아와 파타 힐라 광장을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다. 꼬따 뚜아 관련 사진 및 소개 글은 총 40페이지 분량의 공식 관광 안내 책자에서 약 8페이지에 실릴 만큼 주요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으며, 꼬따 뚜아와 파타힐라 광장은 문화역사예술적 가치를 강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꼬따 뚜아와 파타힐라 광장은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 공식 관광 안내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으며10), 소개 방식은 [그림 5]의 관광 안내 홍보 책자 설명 방식과 유사하다.

파타힐라 광장은 꼬따 뚜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네덜란드 VOC가 처음 진출한 순다 끌라빠(Sunda Kelapa) 항구로부터는 남쪽으로 약 4km 떨어져있다([그림 4] 참고). 파타힐라 광장은 VOC 진출 이전에는 시장이었 다는 기록이 존재하며, 17세기 초반 광장의 남쪽에 바타비아 시청(stadhuis) 이 건설되며 시청 앞에 현재와 같은 크기의 광장이 조성된다. 이 광장의 이 름은 '시청 광장'이라는 의미의 네덜란드어 "Stadhuisplein"이었으나, 독립 이후 파타힐라 광장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Demak족과 Cirebon족의 연합군 장군으로 바타비아 항구(Sunda Kelapa)에서 1527년 포르투갈 군대의 침략 을 막아내는 데 공헌한 장군인 파타힐라(Fatahillah)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 했다. 파타힐라 장군은 당시 바타비아 지역을 '승리'를 뜻하는 Jayakarta로 변경하기도 했다. 따라서 파타힐라 광장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 공간의 탈 식민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은 꼬따 뚜아 지역에서도 네 덜란드 식민지배 시기에는 군사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재생 사업 이후에는 문 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했다. 이는 파타힐라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한 주요 건 물들의 활용 역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건물들은 주로 과거 식민 행정을 위 한 기관 건물로 시청, 법원, 군사 기관 등으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박물관, 미 술 전시관, 식당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제5장에서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

¹⁰⁾ 인도네시아 관광청(Ministry of Tourism, Republic of Indonesia), https://www.indonesia.travel/gb/en/trip-ideas/explore-jakarta-kota-tua-today-s-old-batavia, 자카르타 관광문화부(Department of Tourism and Culture of Jakarta) http://jakarta-tourism.go.id/visit/, (검색일: 2021/06/28)





[그림 7] 파타힐라 광장과 주변 건물 (출처: 한인니문화연구원)

주지사 조정법 No.36/2014에 따르면 꼬따 뚜아 공간 재생 사업 대상 건물들을 보존 가치에 따라 A~C등급으로 나누었고 보존 상태에 따라 다시세 등급(Good, Moderate, Bad)으로 구분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가 집중하는 지역인 파타힐라 광장을 둘러싸는 건물들은 꼬따 뚜아 지역의다른 건물들에 비해 보존가치가 높으며, 보존 상태 역시 양호한 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물의 성격 및 역할(function)에서 파타힐라 광장의 건물은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세무서, 다목적 공간 등) 건물과 박물관등의 교육 건물이 위치해있는 반면, 외부 건물은 무역업 관련 건물이나 물

류 창고가 많았다.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는 파타힐라 광장의 건물은 주정부와 인도네시아 당국 소유의 건물이 많은 반면, 외부에 위치한 건물은 개인이나 민간 소유의 건물이 많았다. 이에 따라 파타힐라 광장 주변의 건물들은 (지방) 정부 주도로 실시된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의 적용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던 파타힐라광장과 주변 건물들은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공간 사용자들이 공간 실천을 통해 참여한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네덜란드식민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탈식민주의 공간

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적이고 집단적으로 동원한 여성 피해자들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한동안 '정신대'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성노예'라 표현되기도 한다. 영어로는 흔히 'Comfort Women'으로 번역된다.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점령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다(Nurpratiwi et al., 2017),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당시 일본군이 부르던 표현인 '주군위안부(從軍慰安婦)'의 중국식 발음인 'Jugun Ianfu'라 표현한다(Trihoni at al., 2015). 본연구에서는 이해를 위해 한국에서 교과서 등에 사용하는 공식적 표현이자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인 일본군 '위안부'를 쓰며 특별한 설명이 없는 '위안부'라는 표현은 인도네시아의 'Jugun Ianfu'를 의미한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약 3년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점령했으며, 이 시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에 집중하던 시기였다(전제성, 2003).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당시 일본의 피식민 국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됐다.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점령 이후 인도네시아에 잔류하거나 포로로 억류된 적국 연합인 연합국(네덜란드, 영국 연방(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여성과당시 식민지였던 한국, 대만 등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

다. 그러나 1943년부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수세로 몰리며 점령 지역 안의 교통로인 바닷길과 하늘길이 막히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차질이 생기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차출한다(뚜르, 2019).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역할을 모른 채, 혹은 취업, 유학 등으로 속임을 당해 일본군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다 (Nurpratiwi et al., 2017; 뚜르, 2019; 김영수, 2020). 일본군은 직접 '위안부'를 차출하거나 중국 국적의 중개인 등을 통해 모집·동원하기도 했다(인터뷰 참여자 22).

일본군은 '위안부'의 출신과 차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위안소를 운영했으며,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등 당시 일본이 전쟁을 치렀던 여러 지역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Hindrati and Kimura, 2007; 김영수, 2020). 이 중 인도네시아로 동원된 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었던 위안소도 있는데, 자바섬 중부에 위치한 스마랑(Semarang)주 암바라와(Ambarawa) 지역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암바라와 요새(성)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하던 1834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조했으며 1942년부터는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이 요새를 연합군 포로수용소 겸 군부대로 썼다. 일본군은 암바라와 성 바로 앞 약 7m 거리에 44칸의축사 같은 건물을 지어 위안부 처소로 썼다. 현재는 44칸 중 일부는 네덜란드 등에서 암바라와 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화장실로 개조했고, 일부는 창고 등으로 쓰고 있다([그림 7] 참고). 인도네시아로 온 한인 위안부의수는 약 23명으로 추정되며 이곳 위안소에 약 13명이 배속된 것으로 알려진다11). 이는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던 기간 중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민주의 공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¹¹⁾ 한국일보, 2019/08/07, "꽃다운 조선 소녀는 잊히고··· 화장실로 변한 '印尼 위안소'", h 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071695363595



[그림 8] 암바라와 일본군 '위안부'수용소 (출처: 한국일보¹²⁾)

1991년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Hindrati and Kimura, 2007)¹³⁾. 이에 따라 1993년 인도네시아 사회부(Kementerian Sosial)는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피해자들을 조사한다. 이로 인해 한동안 잊혀지고 감춰졌던 존재였던 수백명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조사되었다(인터뷰 참여자 22). 그러나 다른 조사에서는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0,000명, 혹은 40만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동원되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Trihoni et al., 2015; 뚜르, 2019). 이처럼 인도네시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산 수치에 큰 차이가 나는 데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일본군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 은폐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김영수, 2020).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은 현재까지

¹²⁾ Ibid.

^{13) 1992}년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 신문인 '수아라 머르데까(Suara Merdeka)'에서 조코 산토소(Joko Santoso) 기자가 숙모인 뚜미나(Tuminah)의 일본군 '위 안부' 피해 사실을 기사화한 것이 첫 사례이자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 인도네시아 역사 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편이다(Nurpratiwi et al., 2017).

199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에서도 피해자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AWF, Asia Women's Fund)을 조성하여 1997년부터 10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 지원 기관의 뇌물 수수와 착복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영수, 2020). 이후 2002년 일본의 정치인들이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인도네시아를 방문했지만, 이 방문 중에 있었던 회동에서 인도네시아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길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당시에도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영수, 2020).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족자카르타 법률구조단(LBH)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거나 예술가 중심의 개별 활동가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위한 캠페인이나 작품 전시를 하는 등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 사실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천으로 피해자들의 국제 행사에서의 중언¹⁴⁾과 이들의 피해 사실을 설명한 책의 출판(뚜르, 2019), 그리고 전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8] 참고). 대표적으로 2016년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자카르타 Cemara 6 Geleri에서 'Kitab Visual Ianfu'라는 제목으로 '위안부'의 피해를 알리는 전시회가 열렸다([그림 8] 참고).

¹⁴⁾ 연합뉴스, 2020/08/0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일 인도네시아 위안부 문제 학술 콜로키엄", http://www.yna.co.kr/view/AKR20208030420530?input=195m



[그림 9] 인도네시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시적 탈식민주의 공간 (상) '제15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위안부' 피해자들 (출처: KBS¹⁵⁾), (하) Galeri Cemara에서 열린 K itab Visual Ianfu ('위안부 시각 자료') 전시 (출처: Kaori Nusantara, https:/www.kaorinusantara.or.id/english/2365/opinion-kitab-visual-ianfu-and-reflections-on-world-ianfu-day, 검색일: 2021/03/20))

이처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같은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¹⁵⁾ KBS, 2018/03/08, "아시아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 원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5931&ref=A

대한 사회·제도적인 관심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전절에서 설명한 인도네시아의 식민주의 (이후) 역사와 관련지어 이해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사회·역사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네덜란드 식민지배 기간, 한국의 일제강점기 기간과 비교했을 때)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약 3년 5개월)의 점령 기간과 독립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 점령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우호적인 정치(외교)·경제 관계 등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작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은 일본 점령 기간의 대표적인 피해 사실로, 일본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령 기간에도 인도네시아를 가혹한 방식으로 식민 통치한 증거이자 탈식민주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Trihoni et al. 2015). [그림 8]과 같이 일본 식민지배 기간의 주요 피해 사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주로 일시적인 탈식민주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나아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추모비를 건립하여 지속적인 탈식민주의 공간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추모비 건립 시도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본 연구의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제 4 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제 1 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와 무산

제4장과 제5장은 본 연구의 본론으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활용하여 사례 공간 (실천)을 분석한다. 서론(제1장)과 사례 소개(제3장)에서는 본연구의 두 사례 공간이 상징하는 식민주의 기간의 순서에 따라 파타힐라 광장, 추모비의 순서로 서술하였지만, 본론(제4-5장)에서부터 본 연구의 두 사례 공간은 각 공간이 상징하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저항의 공간, 제3의 공간)이 논의된 순서에 따라 추모비, 파타힐라 광장의 순서로 서술한다.

먼저 이번 장에서는 첫 번째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번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활동 가들의 추모비 건립 시도 및 무산 과정과 무산의 원인, 그리고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차례로 분석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약 3년 반 동안의 점령 기간은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기간이자, 약 340년의 네덜란드 식민 통치 기간보다 더 가혹했던 기간으로 평가받는다(인터뷰 참여자 22; 24; 25). 이러한 평가는 주로 일본 점령 기간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중언으로 부터 형성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점령 기간에 발생했던 피해 사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하거나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교육하지 않는다 (인터뷰 참여자 20; 21; 24; 25). 이처럼 일본 점령 기간에 발생한 피해 사실이 제대로 논의·교육되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에 대해 네덜란드로부터 인도네시아를 독립시켜준 국가이자 점령 당시 인도네시아 산업화에 기여한 '고마운' 국가라는 역사적 인식의 존재와 일본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차·경제적 주요 외교 대상국이라는 점

이다(인터뷰 참여자 18; 20; 22; 23).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추모비 건립을 시도했다. 한인 활동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 사실이 일본 점령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가 경험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하나이며(인터뷰 참여자 20; 25), 이 피해는 한국과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식민주의 피해 사실이라는 점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추모비를 건립하여 일본 점령 기간에 대한 탈식민주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인터뷰 참여자 20; 21).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조사·지원하는 활동(전시회, 기자회견, 세미나, 모금 활동 등)을 하며 이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일시적 공간이 형성되기도 했지만([그림 8] 참고, 인터뷰 참여자 23; 25), 한인 활동가들은 추모비 건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탈식민주의 공간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다.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추모비 건립을 시도한 주요 계기는 먼저 2015년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한일 합의)'인데, 당시 이 합의는 관련 활동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¹⁶⁾. 비판의 요지는 한국 정부가 한일 합의에서 오랜 시간 피해 당사자 및 관련 활동 단체가 요구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으며, 따라서 이는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한인 활동가들이 추모비 건립을 시도하게 된 다른 계기는 2017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건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이다¹⁷⁾. 한인 활동가들에게 이 사례는 인도네시아에서 추모비 건립을 위한 구체적 참고 사례로 활용됐다(인터뷰 참여자 20). 이 추모비는 한국, 중국, 필리핀 출신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형태로 건립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징용된 다국적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였다. 한인 활동가들은 이상의 두 사건을 통해 2017년 말부터 추모비 건립을 시도한다(인터뷰 참여자 20; 21).

16) 오마이뉴스, 2015/12/31, "위안부 합의 잘못" 국민 여론 우세", http://omn.kr/fq22

¹⁷⁾ 재외동포신문, 2017/09/25,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 위안부 기림비 건립",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130

우선 이들은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해 한국과 해외 여러 지역에 추모비를 건립하거나 건립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한국의 활동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일 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에 추모비 건립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한다. 이러한 문의를 받은 정의연은 필요할 경우 추모비 제작과 운송 비용을 후원하기로 하고(인터뷰 참여자 20; 26), 우선 추모비 건립을 위한 협력할 인도네시아 현지 시민 사회 역량을 모아낼 것을 요청한다. 이는 추모비 건립과 건립 이후 관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건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시민 사 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인터뷰 참 여자 26). 이에 따라 한인 활동가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시민 사회와 한인 사 회에서 추모비 건립에 동참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을 찾아 설득했다(인터 뷰 참여자 20; 21). 한인 활동가들이 추모비 건립을 위해 협력을 시도한 현 지 시민 사회 단체는 기존 일본군 '위안부' 활동 단체(법률 지원 단체), 여성 인권 단체, 대학 내 단체 등이다(인터뷰 참여자 20; 21).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며 인도네시아 한인 활동가들의 추모비 건립 시도는 무 산된다.

추모비 건립 시도를 위한 협력이 무산된 주요 원인에 대해 한인 활동가들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일본 민관 단체의 반발 및 방해라 생각했다(인터뷰 참여자 19; 20; 21). 한인 활동가들은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일본 이주민 단체의 반발 및 방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이었다. 먼저 한인 활동가들이 추모비 건립 협력을 요청한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중 일부가 일본 측 단체로부터 추모비 건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회유,혹은 협박을 받았다. 한인 활동가들은 호의적으로 협력을 논의하던 인도네시아 단체가 돌연 협력을 곤란해하거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식의 태도로 변화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인터뷰 참여자 20). 한인 활동가들은 이런 방식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협력하던 대학 내 학생 단체들로부터일본 단체가 중간에 방문하여 추모비 건립 협력을 자금 지원을 활용하여 회유·협박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인터뷰 참여자 20). 한인 활동가들은 협력을 시도한 단체들의 태도 변화의 원인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부, 혹

은 다수의 인도네시아 협력 시민 단체들은 일본 단체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추모비 건립 협력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 짐작했다. 한인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추모비 건립에 반발하는 일본 단체의 정보력과 행동력을 확인했다(인터뷰 참여자 20; 21). 이를 확인한 한인 활동가들은 더 이상인도네시아 시민 단체에 추모비 건립 협력 요청을 할 수 없었다.

추모비 건립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 및 방해를 경험한 다른 사건으로는, 추모비 건립에 참여했던 한인 고등학생이 다니던 국제 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제로 한 과제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학생들과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있었다(인터뷰 참여자 19; 21). 이러한 반발은 '한인학생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과제는 왜곡된 역사 해석에 의한 것이며, 이를 학교가 방조할 경우 민감한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인터뷰 참여자 19). 일본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과제 수행 중 진행한 공개 발표에서 한인 학생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했고,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반발을 부담스러워했다(인터뷰 참여자 19; 21).

"일본 친구가 부모님들도 같이 세미나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안된다고했고 대신 제가 녹화한걸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 생각해보면 보내주면 안되는거였는데 ... 발표 이후에 보내줬고, (일본 학생) 부모님들이 찾아오시고 서명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 학교는 일단 서명 한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의연에 메일을 보낸걸로 알고있어요. 이름을 빼달라고.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까지 했는줄은 ...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일본 친구랑 학교에 사과하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 서명을 할 때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게 잘못된거였으면 학교에서 막았어야하는게 아닌가 ... (일본 친구랑은) 서로 불편하고 멀어졌어요."

(인터뷰 참여자 19; 한인 활동가(학생), 2020년 11월 4일)

위 인터뷰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추모비 건립에 참여하던 한인 활동가(학생)는 여러 국적(출신)의 학생들이 다니는 국제 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발표 이후 발표를 들은 학생들 에게 당시 정의연에서 진행하는 서명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 사실을 접한 일본 학부모들은 반발하며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주로 학생들을 서명에 참여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학교 측은 일본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정의연에 학생들이 참여한 서명의 회수를 요청했다. 이 사건 이후 한인 학생은 당시 진행하던 일본군 '위안부'관련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으며, 당시 추모비 건립에 참여했던 당시 가깝게 지내던 일본 학생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일본 학부모들의 학교 항의 방문이 알려지는 등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한인 학생은 더 이상 추모비 건립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인도네시아 시민 단체들이 추모비 건립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해된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일본 단체들의 반발 및 방해는 한인 활동가들도 인도네시아 이민법, 비자 발급 및 연장과 관련하여이주민으로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며 추모비 건립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인터뷰 참여자 19; 20; 21). 또한 한인 사회 일부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공공 기관(대사관, 한인회, 한국 국제학교 등)은 한인활동가들의 추모비 건립에 대해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인 활동가들은 한국이 아닌 국외 지역에서 (과거) 일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고발하는 공간 조성으로 국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마찰에 대한 부담에 의한 것이라 판단했다(인터뷰 참여자 21).

이처럼 한인 활동가들이 추모비 건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거나 협조를 받고자 했던 개인과 단체, 그리고 기관들은 모두 추모비 건립을 통 한 탈식민주의 저항의 공간 조성 참여에 부담을 느끼며 한인 활동가들의 요 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인 활동가들은 직접 경험하거나 협력하던 인도네시아 시민 단체로부터 확인한 상황을 통해 일본 측의 반발 및 방해를 추모비 건립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말부 터 약 2년동안 진행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활동가들의 추모비 건립 시도는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다시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2021년 5월 기준).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 무산의 원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활동가들의 추모비 건립 시도는 현지 시민 사회와 협력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무산되었고, 한인 활동가들은 일본 단체들의 반발 및 방해를 무산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인 활동가들은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일본 단체들의 반발 및 방해를 어느 정도 예상했으며(인터뷰 참여자 20; 21),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는 명분에 동의하여 일본 단체들의 반발 및 방해에도 불구하고 협력에 동참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는 한국및 다른 해외 지역에서 일본의 반발 및 방해에도 한인 활동가들이 현지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추모비 건립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갖게 된 기대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와 추모비 건립을 위한 협력이 무산된 데 대해일본 측의 반발 및 방해라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원인 이면의 무산 원인에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인 활동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과 가해자(국가)에 대항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모비 건립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인 활동가들이 협력을 요청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시민 단체들은 일본의 반발 및 방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모비 건립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인 활동가들은 협력 요청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이 전쟁 기간 중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까지 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죄하지 않는 현재의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시민 단체들은 이에 대해 동의와 공감을 표현했다(인터뷰 참여자 19; 20). 그러나 이 피해 사실에 대해 한인 활동가들이 제안한 추모비 건립과 같은 탈식민주의 공간을 조성하는 탈식민주의 실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인 활동가들은 2017년에 건립된 샌프란시스코 추모비와 같이 인도네시아, 한국, 네덜란드 등 다국적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형상화하거나 상징하는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했다(인터뷰 참여자 20). 한인 활동가들이 건립 협력을 제안한 추모비는 피해자(국가)와 가해자(국가)가 이분법적으로 드러나고 피해자(국가)의 저항이 강조되는 공간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한인

활동가들은 협력 대상 개인 및 단체와 가해 사실과 가해국에 대한 분노와 저항 인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없었잖아 옛날에는 … 왕국으로 찢어져 있다가 네덜란드한테 지배당한거니까 그런 의식(민족주의적)이 없다니까, 일본 점령 시기가 힘들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꺼내는걸 일본한테 미안하게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적대심도 없어, … 식민지 시절 얘기를 별로안하려고 해. 안중근 의사나 3·1운동 같이 우리가 저항한 얘기를 먼저 얘기하면서 왜 너네는 저항을 안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먹혀들어가는거야, … 당신들은 화가 나지 않냐고 물었지 …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민족적 자존감이 처음에는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게 없다고 느껴, 그런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자,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데 …"

(인터뷰 참여자 20; 한인 활동가, 2020년 11월 4일)

이상의 인터뷰 답변을 통해 한인 활동가들이 협력을 요청한 인도네시아시민 단체들은 한인 활동가들이 설득한 추모비 건립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답변에 따르면 한인 활동가들은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는 한국과 다르게식민주의 피해 사실을 '민족'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는식민주의 피해 사실에 대한 분노와 탈식민주의 실천에 대한 의지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한인 활동가들은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와 식민주의 피해 사실에 대한 감정적 공유를 의도하며 탈식민주의 공간 조성 협력을 요청했지만,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는 한인 활동가의 의도와는 달리 설득되지 않았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시민 단체가 인도네시아의 일본 단체들의 반발과 방해를 무릅쓰고 추모비 건립에 협력하지 않은 데에는 한인활동가들과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 간 식민주의 역사 인식과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한인활동가들은 이 차이의 원인을 일본 점령 기간에 대한 제도문화적인 교육 방식의 차이와 이로 인한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인상) 차이 때문이라 생각했다(인터뷰 참여자 20).

먼저 교육 방식의 차이는 일본 점령 기간에 대한 교육의 빈도와 방식의

차이를 의미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기간으로 인식하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교육한다. 또한 제도권 교육이 아니더라도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역사는 소설이나 영화 등 문화 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교육·논의된다. 특히 한국에서 다소 적대적인 방식으로 일본을 역사적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표현(교육)할 때,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점령 사실에 대해서 교육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등 피해 사실에 대해 한국에 비해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일상에서도 일본 점령 기간의 피해 사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인터뷰 참여자 20; 21; 22; 25).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을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네덜란드의 긴 식민지배로부터 인도네시아를 독립시켜준 아시아 동맹국으로 인식하기도 한다(인터뷰 참여자 21; 24; 25; 송승원, 201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인도네시아 점령의 논리로 '대동아공영론'을 활용했고, 일본의 패망 때문이기는 하지만, 약 3년 5개월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며 점령의 논리를 실현(서양 열강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철수)했다. 인도네시아의 일부 독립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일본의 점령 논리에 동의하여 그들의 점령 통치에 동조하기도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독립 이후 독립 국가건설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져 현재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치·경제·외교 상대국이다. 이로 인해형성된 일본에 대한 '이중적'인 국가 인상은 현재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 점령 기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제도·문화적 교육 방식과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 인식은 일본의 반발 및 방해가 존재할 때 일본에 국가 단위로 대항하는 탈식민주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운 배경적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인 활동가들과 인도네시아 시민 단체의 식민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양국의 활동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민족적 피해 사례로 공유하고 있음에도 일본을 가해자로 겨냥하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추모비건립)에 참여하는 태도(적극성)의 차이로 이어졌다(인터뷰 참여자 18; 20; 21). 또한 한인 활동가들은 협력이 무산된 부가적인 원인으로 일본군 '위안

부' 피해 사실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경험했다. 이 차이는 일본 군 '위안부' 피해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해라는 점과 관련되어있다. 한 한 인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순결 주의'를 강조하는 종교적 원인(이슬람)으로 인해 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인터뷰 참여자 20). 그러나 다른 한인 활동가는 인도네시아는 여성의 '순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인터뷰 참여자 21).

"그분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선도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여자의 정절'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한국)와 인도네시아가 달라요. ... 인도네시아가 훨씬 성적으로 자유롭잖아요. ...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더 드러내기 힘들죠. ... 늘상 여자들을 사고 파는게 많으니까. 종교적인 배경도 있잖아요. ... 끔찍한 일이긴 해요, 행위적으로. 그런데 성거래의하나로 인식을 하는거죠. 물론 그분들도 자발적이었던건 아니지만..."

(인터뷰 참여자 21; 한인 활동가, 2020년 11월 4일)

이 인터뷰 답변은 인도네시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가 보편적이고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천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이처럼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대해 다른 방식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 차이의 원인에 대한 상반된 분석은 한인 활동가들 개인의 편견이 개입된 주관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식민주의 피해 사실에 대한문화적 인식·수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성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추모비 건립 협력이 무산된 원인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제 2 절 저항의 공간

1. 저항의 공간: 사례 비교를 통해

이전 절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활동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시도와 이를 위한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와 협력 과정에서 이 시도가 무산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한인 추모비 건립(탈식민 주의 공간 조성)이 무산된 원인을 한인 활동가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봤 다. 이번 절에서는 한인 활동가들이 건립하고자 했던 추모비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 개념을 활용하여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으로 해석한다. 아래에서는 다른 국가와 지역에 건립된 추모비 공간 특성을 소개하며 한인 활동가들이 건립 시도한 인도네시아 추모비의 공간 특성을 설명한다. 본 연 구 사례 공간의 특성을 다른 지역의 공간 특성과 비교를 통해 서술하는 이 유는, 추모비 건립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 특성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한인 활동가들이 건립 과정에서 견본으로 참고한 사례의 공간 특성을 설명하며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인 활동가 들이 공간 조성 시도 과정에서 참고한 사례 공간의 특성을 공간 실천 행위 자들의 의도와 자기 평가를 중심으로 드러내며 이를 통해 한인 활동가들의 추모비 공간 조성 의도를 관찰하고, 공간 조성 시도가 성공했을 때 물리적 인 공간의 특성을 짐작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사례를 비교하 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배경 맥락적 차이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추모비는 2011년 한국에서 건립된 이후 해외 여러 지역에도 건립되었다. 이 지역들에서는 추모비를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공간이 조성되었고, 추모비의 형태와 이에 대한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의도 및 해석(평가)은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심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해외 추모비 건립 과정과 공간 조성 행위자들의 평가를 분석하며인도네시아 추모비 건립 시도(공간 실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한다. 이를 위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공간은 한국과 시드니, 그리고 샌프란

시스코의 추모비이다. 추모비는 한국에 총 131개, 한국 외 다른 국가(지역)에 총 33개의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다(2021년 5월 기준, 정의연 제공)18). 한국에는 추모비가 가장 먼저 건립됐으며, 현재 가장 많은 추모비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추모비 중 2011년 12월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의 모습으로 세워진 추모비가 보편적으로 알려져있으며([그림 9] 참고), 이후 세워진 추모비들의 견본으로 참고되었다. 호주 시드니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추모비는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건립되었으며, 이 시기는 인도네시아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추모비 건립 시도를 결정한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로, 한인 활동가들의 추모비 건립 시도 결정과 과정에 참고한사례들이다(인터뷰 참여자 20; 21).

"정의연이 세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소녀상 있잖아, 그걸 똑같이 (인도 네시아에) 만들 경우 (정의연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고 ... 제작비나 운송비같은거 ... 샌프란시스코 (추모비) 세웠을 때 내가 힌트를 받았지, '아, 여기도 한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다국적 추모비(를 세우면 어떨까)' ... 영감을 얻은거지."

(인터뷰 참여자 20; 한인 활동가, 2020년 11월 4일)

이상의 인터뷰 답변을 통해 한국에 처음 건립된 추모비와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추모비 건립을 시도한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건립된 해외지역의 추모비는 이들이 건립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활용한 사례였음을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및 해외 추모비 건립 사례를 분석하는데, 구체적으로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천 의도를 분석하고 추모비의 외형을 통해 탈식민주의 공간의 외부 형태를 설명하며 물리적인 공간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한국에서는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관련 개인 및 단체들이 1992년 1월부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촉구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수요 집회'를

¹⁸⁾ 정의기억연대 웹사이트, 활동소개(평화비 건립 지원), https://womenandwar.net/kr/peace-statue/, (검색일: 2021/06/28)

열었으며, 1000차 수요집회가 있었던 2011년 12월 14일에 집회 장소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이는 수요집회의 일곱 가지 주요 요구사항 중 마지막 일곱 번째 요구사항인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일본 정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연대 단체가 직접 실천하자는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 23).



[그림 10]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앞 추모비 (2021년 03월 06일 촬영)

매주 한 차례 집회가 열리던 장소에 추모비가 세워지며 관계자 및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도 저항과 요구가 계속 이어진다고 느꼈으며, 실제로 정해진 집회 시간 외에도 피해자의 당시 모습('소녀')을 형상화한 추모비에 목도리, 양말, 마스크, 우비, 꽃 등을 가져다놓는 등 개인적으로 추모 행위를 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즉,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되던 저항의 공간은 추모비 건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집회 참여자들의 공간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더 커졌다(인터뷰 참여자 23; 26). 이는 수요집회로 인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저항의 공간 실천이 물리적 실체로 전환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민족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상상하게 하는 상징적 경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희선, 2013). 이후 이 추모비를 참고

하여 한국 전역의 다른 지역에도 건립되었으며, 이 추모비는 지역에서 자발 적으로 조직하여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의연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추모비 형태는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 진 추모비와 형태가 다르기도 하며, 이에 대한 의미 부여, 해석, 인식 등이 다르다(인터뷰 참여자 23).

이와 같이 한국에서 추모비 건립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 단체, 개인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로 인해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갈등과 논란은 기존에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되어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활동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와 같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한국 측에서 이 문제를 다룰때 민족주의적 감정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해왔다(인터뷰 참여자 23; 26). 이 논란은 주로 민족주의의 과잉 개입에 대한 조정과 관련되어있는데,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의 지나친 개입에 주의한다. 이는 민족주의적 인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축소·왜곡되기 때문이다(인터뷰 참여자 26).

"일본과의 싸움이 중요하잖아요. 일본이 변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도 치 않게 민족적인 싸움처럼 (보여졌어요). 한·일의 대치가 아닌데, 저는 수요 시위(집회)에서도 '우리 운동은 반일 운동이 아닙니다, 분쟁을 만드는게 아닙니다'라고 늘 말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태극기도 들지마세요, 성조기도 들지마세요, 여기는 민족을 상징하는 기가 꽂혀서는 안됩니다. 여기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비만 듭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거거든요. ...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요. 3·1절, 8·15, 혹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을때 언론에서 꼭 우리 운동을 활용해요. 마치 '위안부' 운동이 반일에 앞장서는 것처럼. ... 일본에서도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해요. 한일간의외교적 문제가 힘들어졌을 때, ...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은 제 한계였고, 지금까지도 숙제예요. ... 이 문제는 한 민족과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참여자 26; 전(前)정의연 활동가, 2021년 1월 13일)

위 인터뷰 답변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서 활 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민족주의적 참여 동기 및 태도가 관련 활동 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란과 갈등은 추모비가 건립되며 추모비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동에 활용할 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심화됐다(인터뷰 참여자 23). 추모비 형태로 인해 심화된 논란은 추모비 건립을 주도한 정의연의 의도와는 다른 논란이었다. 의도하지 않은 논란은 피해자의 당시 모습('소녀')을 재현한 추모비의 형태 로부터 기인한다. 일부에게 전통 복장을 입은 피해 소녀의 모습을 재현한 추모비는 민족적인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됐다(정희선, 2013). 정의연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추모비의 형태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했을 뿐이며, 이러한 논란이 오히려 한국식 가부장주의에 영향을 받은 '여성 순 결주의'적 해석이며 이러한 해석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 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인터뷰 참여자 23; 26). 이는 한국의 관 련 활동에서 추모비의 건립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긍정 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론 기존에 관련 활동에서 존재해온 민족주의와 관련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추모비 건립 사례는 호주 시드니 추모비 사례이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한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 앞 수요집회, 호주 연방 결의안 채택 시도, 서명 활동 등이 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초청하여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2015년 12월에 한일합의가 있었다. 이 두 사건이 계기가되어 2016년 1월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 위원회가 구성된다(인터뷰참여자 27). 추진 위원회의 활동으로 2016년 9월 호주 시드니에 추모비가건립된다. 추모비 제막식은 호주 시드니 한인회관 앞에서 진행됐고, 현재추모비는 호주 현지 교회인 애시필드 연합교회(Ashfield Uniting Church)에위치해있다.

시드니 추모비는 2011년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 건립된 추모비와 같은 형태로 건립되었으며, 추모비 건립을 위해 정의연과 협력하고 건립 과정

을 참고했다(인터뷰 참여자 27).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건립한 시드니 추모비의 의미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갈등은 앞서 설명한 한국 추모비 건립 사례와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시드니 추모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했던 한국과 일부 국가의민족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직접적인 관련 피해가 없는 지역19)에서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호주 시드니 현지사회를 설득했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문경희, 2018). 또한 추모비 건립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시드니 한인 활동가들의 활동이 구체화되었고 새로운 활동들이 기획됐다(인터뷰 참여자 27; 28; 31).

이 과정에서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과 일본 이주 사회의 반발과 방해도 존재했다. 일본 영사관은 한국 영사관이나 시드니 지방 의회에 항의하거나 현지 일본인 사회에서 추모비 건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인터뷰 참여자 27; 31). 이러한 논란과 갈등은 시드니 한인 사회로도 확산됐다. 시드니 한인 사회 일부에서는 추모비 건립으로인해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현지 한인 사회가 피해를 받을 것이라 우려했다(인터뷰 참여자 27; 31). 당시 호주 시드니 한인회와 영사관은 한인 활동가들의 추모비 건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추진 위원회에 추모비 건립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인터뷰 참여자 27). 이는 인도네시아 한인 활동가들이 추모비 건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의 반발로 인해 경험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추진 위원회 내부에서는 활동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상이한 활동 참여 동기들이 발견되었고 추모비 건립 과정과 이후 추모비 관련 활동을 기획하는 데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상이한 활동 참여 동기는 민족주의적 동기와 보편주의적 동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추진 위원회의 추

¹⁹⁾ 호주에는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호주인 얀 러프 오헤른(Jan Ruff O'Herne 1923-2019)이 존재한다. 그러나 호주는 일본의 점령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니를 '직접적인 관련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해석한다.

모비 건립은 '평화, 여성 인권' 등 보편주의적 가치를 표방했지만, 일부 구성원들의 민족주의적 동기가 발견되었던 것이다(인터뷰 참여자 28; 31). 추진 위원회에서는 일부 구성원들의 민족주의적 동기가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어야 할 태도로 인식했지만,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의 활동 역량을 확장해야했고, 이를 위해 민족주의적 동기로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들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인터뷰 참여자 28; 31).

"단체 안에서도 정치적인 지향이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한국의 여성? 소녀와 순결성에 대한 집착? (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게 세대별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안에서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한분 한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함께 하지만, 단체적인 지향은 분명히 민족주의적인 것을 넘어서 탈식민주의적이면서 여성주의적인 '인간, 휴머니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인터뷰 참여자 28; 시드니 한인 활동가, 2021년 02월 01일)

마지막으로 검토할 관련 사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추모비 건립 사례에서도 앞서 설명한 한국과 호주 시드니 추모비 건립 사례와 공통점 및 차이점이 발견된다. 샌프란시스코 추모비는 2017년 9월에 건립되었으며, 건립과정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출신 이주 단체가 추진한 추모비 건립에 한인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인터뷰 참여자 29). 앞서 소개한두 사례와는 달리 샌프란시스코 추모비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을 잡고 있는 형태의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흔히 '다국적 기림비(소녀상, 추모비)'로도 불린다. 호주 시드니 추모비 건립 사례와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도 일본측의 반발이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지방 의회의 지지와 건립 과정에 참여한 다국적 단체들의 연대로 이를 극복했다(인터뷰 참여자 29; 30). 따라서같은 해외 추모비 건립 사례인 호주 시드니 사례와는 달리 건립 과정에서 현지 일본 측과 심한 갈등을 경험하진 않았다. 또한 호주 시드니에서 추모

비 건립 과정에 표출된 한인 사회의 갈등은 샌프란시스코 사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추모비 건립은 중국과 한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활동가들의 '초국적 연대'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 해석되기도 한다(인터뷰 참여자 29).

샌프란시스코 추모비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추모비의 형태(한명의 '소녀'가 앉아있는 형태, [그림 9] 참고)와는 다른 모습으로, 세명의 '다국적 소녀'들이 표현됐다. 이러한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추모비는 한국과 시드니의 추모비와 다른 성격의 추모비라기보다 피해 사실의 사실적 재현을 통한피해 사실의 고발이라는 한국 및 시드니의 추모비가 갖는 공간적 의미가 다국적 연대라는 의미가 더해지며 확장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추모비가 이와 같은 형태로 건립된 데에는 추상적인 상징물보다는 사실적인 조형물이 이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며(인터뷰참여자 30), 이로 인해 이 조형물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모습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비록 추모비의 형태는다르다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추모비로 인해 조성되는 공간 역시 식민주의적 피해와 가해가 구분되고, 피해자들의 편에서 가해자를 고발하는 저항의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해 참고한 사례로, 인도네시아에 추모비가 건립되었을 때 공간의 특성을 가늠할 수 있는 비교 사례들을 살펴봤다. 이상으로 제시한 세 사례는 지역 별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피해자(민족)의 입장에서 식민주의 피해 사실을 표현하고 가해자(국가)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저항의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추모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로, 이로 인해 조성되는 공간에서 피해자(국가, 민족)와 가해자(국가, 민족)는 명확히 구분된다. 즉, 이 탈식민주의 공간은 식민주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분법적(이항대립적)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로 인해 세 사례에서 모두 가해자(민족, 국가)로 지목된 일본의 반발 또는 건립 방해가 있었고 건립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이를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있었다.

또한 '소녀'의 모습을 한 추모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더 사적이며 감성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는데(정희선, 2013), 이로 인해 한국과 시드니의 사례에서는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피해 민족(한인)의 민족주의와 관련된 논란도 존재했다. 나아가, 시드니와 샌프란시스코는 지리적으로 직접적인 일본의 식민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도네시아에 조성될 탈식민주의 공간은 한국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민족, 국가)와가해자(민족, 국가)의 구분이 더 명확한 저항의 공간으로, 가해 국가로 지목될 일본과의 갈등도 더 첨예한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이는 앞서 설명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 중 '저항의 공간' 실천 개념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인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처음 건립된 추모비와 이에 영향을 받은 해외추모비 건립 사례를 인도네시아 추모비 건립의 견본으로 참고했다는 점에서추모비를 건립하여 조성하고자 했던 공간은 이상으로 설명한 세 사례의 공간 특성과 유사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한인 활동가들은 일반적인추모비의 형태와 같이 특정 피해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추모비를 인도네시아에 건립하고자 했다. 한인 활동가들은 이 공간의 조성을 통해 피해자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와 가해 사실을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고발하고자 했지만, 공간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자 했던 인도네시아인 개인과 단체들은 일본의 반발과 방해가 있자 '저항의 공간' 조성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인터뷰 참여자 20; 24).

2. 탈식민주의 인식과 비관주의

비록 한인 활동가들이 추진한 인도네시아에서 추모비 건립은 무산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한 인 활동가들이 추모비 건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설득한 논리와 무산된 원인에 대한 자체 해석, 그리고 설득 과정에서 참고한 한국 및 해외 지역의 추모비 건립 사례를 통해 추모비 건립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탈식민주의 공간의 특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공간의 추모비 조

성 시도 무산 과정과 다른 지역 건립 사례와의 비교에서 발견되는 공간과 공간 실천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고 이를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과 비교하며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과 탈식민주의 비관주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한인 활동가들은 추모비 건립을 시도하는 공간 실천 과정에서 실천 대상 사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 민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인 식을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와 협력 과정에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설득 방 식과 견본으로 제시한 추모비의 모습을 통해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건립하고자 했던 추모비는 특정 피해자의 모습을 재현하여 구체적으로 식민 주의 피해 사실이 강조되는 모습으로 조성되리라 예상됐다. 추모비를 이미 건립한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은 특정 피해자가 재현된 추모비의 모습에 대 해 식민주의 피해 사실의 사실적 재현이라 주장했다(인터뷰 참여자 23; 26; 27; 29). 따라서 추모비의 건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족주의적 갈등과 논란 은 추모비 건립(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로 인해 공간 실천 행위자들은 탈식민주의 공간을 둘러싼 의도치 않은 논 란과 갈등을 관리·해결해야 했다(인터뷰 참여자 23; 26; 28). 비록 추모비를 건립하고 관리하는 공간 실천 행위자들은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재현을 의도 했다 하더라도. 추모비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들이 논란 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추모비라는 탈식민주의 공간이 반드시 식민주의 피해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재현으로만 해석되기보다 많은 경우 주관적이 고 감정적인 공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로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형태이자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추모비 건립 시도 과정에서 참고한 다른 지역의 추모비 형태는 실제 사람의 모습을 재현한 형태로 피해자들을 상징한다. 이 추모비는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어린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정의연에서도 추모비의 인물을 '소녀'라고 표현한다²⁰). '소녀'는 사전적으로나 일상적으로 통용될 때 모두 대략 10대의 어린 여성을 의미하며, 추모비에 표현

²⁰⁾ 정의기억연대 웹사이트, 활동소개(평화비 건립 지원). https://womenandwar.net/kr/pea ce-statue/, (검색일: 2021/06/16)

된 여성도 일반적으로 '소녀'라 이해되는 연령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의 연령은 11세에서 27세로 조사되는데²¹⁾, 추모비에는 전체 피해자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추모비이자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건립하고자 했던 추모비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일부 자료에는 수십만 명)의 피해자 중 일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추모비가 재현한 피해 사실의 일부인 '어린 소녀'들의 재현은 식민주의 피해의 잔혹함을 강조하며 감정적 동요를 유발한다. 이 감정은 피해 민족의 입장에서 가해국에 대해 느끼는 식민주의 이항대립적 구도에 기반한 감정이다. 따라서한인 활동가들로부터 추모비 건립 협력을 요청받은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개인 및 단체들에게 '식민주의 피해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재현'이라는 한인 활동가들의 탈식민주의 공간 조성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능성에 주목하는데, 그 원인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 특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은 인도네시아가 독립 과정에서 경험한 복잡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 이후 네덜란드가 재침략을 시도하는 등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독립 과정을 겪었다. 이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독립 지도자들의 여러 판단을 평가하는 문제는 인도네시아 독립 국가 건설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 지배 이전 단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 지역, 종족,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 구성원들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과제는 인도네시아가 독립 이후 건국 정신을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의미하는 빤짜실라로 삼은 결정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독립 이후 완전한 독립과 주변 독립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위해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는 과제도 갖고 있었다(인터뷰 참여자 1). 따라서독립 직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 과정의 복잡성(혼란)과 이질적 정체성들의

²¹⁾ 정의기억연대 웹사이트, 소개('일본군 성노예제란?'), https://womenandwar.net/kr/what -is/(검색일: 2021/06/16)

통합,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는 당면한 과제로 인해 과거 식민주의 역사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기보다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시급히 확립하여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했다(인터뷰 참여자 1; 2; 25).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빤짜실라, 교도 민주주의, 비동맹주의 등을 천명하고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려 노력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과거 식민 지배, 혹은 점령 국가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식민주의를 경험한 대부분의 독립 국가에서는 과거 식민 지배국가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정서가 형성되고 이는 과거 식민주의 문화를 독립 국가, 사회에서 배격하는 실천과 제도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 식민주의 문화와 제도의 일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주된 민족적 정서로 형성되어있지 않다(인터뷰 참여자 2; 3; 4; 25). 이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교육, 건축, 교통 등의 문화와제도에서 네덜란드, 일본 식민지배 흔적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있다(인터뷰 참여자 2; 3; 4). 또한 과거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고 점령했던 네덜란드, 일본과 현재 우호적인 경제·외교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인도네시아 사회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인터뷰 참여자 1; 3; 25).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민주의 피해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역사 교육)과 현재의 필요를 위한 외교적 관계 형성을 모순된 실천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두 실천을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인터뷰 참여자 24; 25). 이는 식민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상에서 현재 국가 전체(네덜란드, 일본), 혹은 일반 국민을 분리하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역사 인식을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인터뷰 참여자 9; 25).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탈식민주의 인식에 대해 '인도네시아 사회과 식민주의 역사 평가 및 탈식민주의 실천과 현재 외교·경제적 선택을 분리하여 이해하며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인터뷰 참여자 1; 2; 18; 25)와 함께 '이러한 탈식민주의 인식은 제대로 된 식민주의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인터뷰 참여자 1; 3; 22)가 동시에 존재한다. 두 번째 평가를 지지하는 부가적인 해석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화교)들을

향한 차별적인 문화가 과거 식민 지배(점령) 국가와 민족을 대상으로 한 분노와 저항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인터뷰 참여자 3).

이상으로 제시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주의 역사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더 적절한 해석을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 식민주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강조한다(인터뷰 참여자 2; 16; 22; 25). 이는 식민주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비극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교육해야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단순히 가해와 피해로만 나누어 범주화하는 '흑백 논리'에 매몰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인(있는 그대로의)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지나친 감정의 개입에 주의해야하며, 이에 따르면 식민지배 기간 중에 인도네시아의 산업과 기반구조의 발전 또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인터뷰 참여자 1; 2).

나아가 과거 인도네시아가 경험한 식민주의 피해에 대해 식민 지배 국가의 잘못만 부각시켜 비난하기보다 '우리(인도네시아)의 책임'을 통한 '자기반성'을 강조하며, 이는 역사 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기도 한다(인터뷰 참여자2; 9; 25).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반성'이란 인도네시아가 '힘이 없을 때(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식민주의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식민주의를 방지하거나 식민주의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다는 반성을 의미하며 이는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어진다(인터뷰참여자 24; 25). 또한 이와 같은 인식은 식민주의 피해와 이로 인한 아픔,슬픔,분노 등의 감정을 식민지배(점령) 국가를 향해 표출하기보다 자기(국가,민족)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실용적 태도로 발전된다(인터뷰참여자 18; 25). 따라서 앞서 제시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에 대한 두 해석중 두 번째로 제시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과 실천 특성은 역사 교육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현재인도네시아에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탈식민주의 인식을 가지려 노력한다는 첫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한 해석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지배와 점령 시기에 대한 역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제도권 교육 이외의 노력을 통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주의 기억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모두 기억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억은 탈식민주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탈식민주의 기억과 실천은 자기 반성(Self-criticism)도 포함합니다. 이는 다시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25; 인도네시아 역사 활동 단체 활동가, 2021년 01월 18일)

이처럼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에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 이해는 자 기 반성과 발전이라는 실용적인 목표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탈 식민주의 인식과 인식 형성 배경에서 민족주의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박 은홍. 2010). 다양성의 통일.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와 국가 정체성 발견 및 확립 등이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반)식민 민족주의는 흔히 식민 가해국(민 족)에 대해 적대적 배타성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 식에서 발견되는 민족주의 특성은 상대 국가(네덜란드, 일본)와 우호적인 경 제·외교적 관계를 맺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인터뷰 참여자 1; 2; 25). 인도네시 아가 독립 직후 당면한 과제(자기 정체성 수립, 경제 발전)를 어느 정도 해 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현재에도 식민주의를 평가할 때 민족주의에 기반 한 이분법적(이항대립적) 이해가 아닌 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탈식민주의 인식이 단순히 독립 직후 혼 란스러운 상황의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 태도만은 아니었음을 이 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객관적) 역사 이해'와 '실용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은 탈식민주의 실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건립하고자 했던 추모비의 특성이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에 부합하여 공간 실천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한다.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 시민 사

회에 제안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추모비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라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의 특성과 부합하기보다는 전체 사실의 일부를 강조하여 특정 탈식민주의 실천으로의 감정적인 공감 및 동참을 유도한다. 또한추모비를 건립하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거나 현재 관련국과의 외교·경제 관계에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경계하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의 실용적인 태도와도 차이가 있다. 추모비는 미래의 자기 발전보다는 식민주의 과거가 강조되며, 건립 이후에는 건립 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될것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 건립하고자 한 추모비는 식민주의 이항대립적 구도가 강조되는 '저항의 공간' 실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피해 민족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강조하고 가해자를 고발하는 공간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 실천은 반(反)식민주의적 실천이며, 식민주의 시기 및 권력과의 시간론적인단절이 추구된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폭넓은 복수성의 실천이 허용되기보다 특정한 방식(범위)의 탈식민주의 실천이 요구된다. 추모비를 활용한 탈식민주의 실천 행위자들은 추모비를 형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민족적 동질감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피해 민족의 입장에서 가해국에 대항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과잉 표출은 제한된다. 즉, 추모비를 활용한 탈식민주의 실천에서는 '적당한'민족주의적 감정이 표현되는실천 방식이 요구·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항의 공간 실천은 앞서 설명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특성과 차이가 있다.

저항의 공간 실천으로 분석되는 한인 활동가들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실천에 제시되는 비관주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저항의 공간 실천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실천이며 이는 식민주의 너머의 해방적인 담론과 질서를 논의하지 못한다는 비관적인 비판이 제기된다. 즉, 이러한 비판은 저항의 공간 실천은 식민주의 이항대립의 구도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유의미한 저항이며 이 구도 자체를 해체하거나 극복하려는 실천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추모비 사례에서 발견되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식민주의 구도에서 피해 민족의 저항으로 해석되며 새로운 질서보다는 시간 론적으로 단절해야 하는 식민주의적 피해가 오히려 반복강조된다. 이 실천은 식민주의 과거와 시간론적인 단절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식민주의 구도를 재생산하며 과거 시간과 연결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해방적 담론이 논의되기보다 식민주의 과거가 소환된다. 따라서 추모비 건립 사례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실천에 대한 비관주의가 적용·증명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비관주의가 지적하는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앞서 설 명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에 의해 거부되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 다.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가 한인 활동가들이 제안한 방식의 탈식민주의 실 천에 동참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이들이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에 제기되는 비관주의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결정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 이해'와 '실용성'으로 요약되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의 특성 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비관주의와 연관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에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 이해가 실용적인 실천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때.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에 서 중심이 되는 가치는 실용성이다. 실용적인 탈식민주의 인식에서는 탈식 민주의의 접두어 '탈'이 내포하는 해방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탈식민주의 인식이자 실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실용성은 불필요한 감정의 과잉을 조절하고, 또한 자기 비판적이며 자기 발전적으로 미래 창조적 역량 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이 원 인이 된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의 결정은 기존 저항의 공간 실천에 제기되는 비관주의에 의한 결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사례인 추모비 건립 시도와 무산 과정을 설명했다. 추모비 건립 시도 무산에 대해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가는 순서로 설명했다. 나아가, 이 원인을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 특성과 연관지어분석했다. 이를 통해 추모비 건립 시도 사례에서 발견되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인 저항의 공간으로 설명하고 이 결과를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비관주의를 기준으로 해석·평가했다. 추모비건립 시도 사례는 저항의 공간 개념 설명 범위에 포함되는 공간 실천 사례이며, 따라서 시간론적 탈식민주의 비관주의가 적용·증명되는 사례이다.

제 5 장 파타힐라 광장

제 1 절 도시 공간 재생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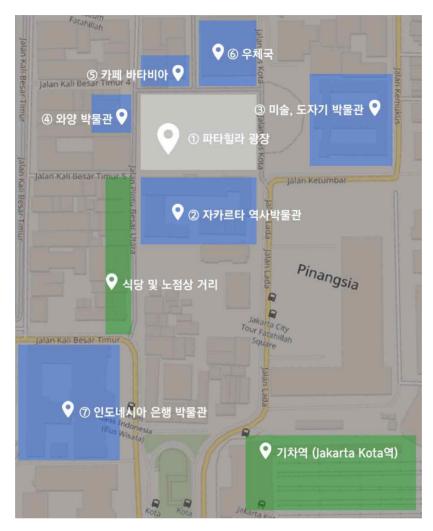
1. 식민주의 공간에서 탈식민주의 공간으로의 변화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두 번째 사례 공간인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과 결과를 분석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공간으로의 변화 과정과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시기 식민 행정의 중심지였던 바타비아 북부 꼬따 뚜아에 위치한 파타힐라 광장은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한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파타힐라 광장 외부의 빈 건물 중 일부는 무역 회사들이 무단으로 창고로 사용하는 등 불법 상행위가이루어졌으며, 파타힐라 광장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고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 시기 파타힐라 광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인터뷰 참여자 13; 16; 18). 이후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활용 가치를 발견한 자카르타 주정부는 1970년대부터 꼬따 뚜아와 파타힐라 광장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그림 11] 18세기말 파타힐라 광장 (출처: Batavia Townhall, Johannes Rach(1770))

피식민 경험이 있는 국가와 도시들이 독립 이후 식민 지배 경관의 흔적을 지우거나 혹은 반대로 식민주의 공간의 경관을 유지하며 문화, 역사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하는데, 꼬따 뚜아와 파타힐라 광장은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이다(UCLG, 2017). 현재 파타힐라 광장은 보행자 친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광장 서쪽으로 나있던 도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하며 광장은 사면이 건물로 둘러싸여있는 형태가 되었다(UNESCO, 2014; [그림 11] 참고). 광장을 둘러싸는 건물은 주로 네덜란드식민지배 시기 건축된 건물로, 몇 차례 개·보수를 통해 현재는 문화·예술·역사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주요 건물로는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예술·도자기 박물관, 와양 박물관, 카페 바타비아, 우체국, 인도네시아 은행 박물관등이 있다.



[그림 12] 파타힐라 광장 주변 주요 건물과 시설 위치 (출처: Open Street Map 편집)

도시 공간 재생 사업 과정에서 파타힐라 광장과 주변 건물의 용도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이 공간을 대표하는 건물인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Jakarta History Museum, Museum Sejarah Jakarta, [그림 11]의 ②)은 1627년 바타비아의 시청으로 이 위치에 처음 건설되었으며 건물의 지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된 흔적도 있다. 건물은 이후 몇 차례 개축을 통해 1710년 현재 건물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건물은 1913년까지 시청으로 사용되었고 1945년 독립 이후에는 군사 기관으로 활용되다 1974년 공간 재생 사업의 일확으로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이 되었다.

자카르타 도시 및 인도네시아의 역사(근현대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시하는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은 주로 역사 교육을 위해 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방문한다.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은 현재 파타힐라 광장을 대표하는 건물로,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방문객으로 붐비는 공간이다. [그림 12; 13]과 같이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은 시청으로 활용되던 건물 공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소의 모습도 그대로 보존되어있으며, 이경우 건물 공간 자체가 전시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3]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의 과거(1910년대로 추정)와 현재(2020년) (출처: Tropenmuseum 소장(좌), 한인니문화연구원 (우))



[그림 14]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 내부 (출처: The Jakarta Post²²⁾)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과 마주보는 자리에 위치한 카페 바타비아(Cafe Batavia, [그림 11]의 ⑤)는 현재 음식점이지만, 1830년대 지어진 이 건물은 네덜란드 총독들의 집무실로 지어졌다. 이후 무역 회사의 사무실, 미술관등으로 활용되다 1990년대 건물을 개조하여 현재까지 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 2층 규모의 건물로, 총독 집무실로 활용되던 공간의 많은 부분을보존하여 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약 50개의 식탁에 200여개의 좌석이 있는데, 주말 오후에는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할 정도로 많은 이용객이 찾는다. 1층에서는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고 2층은 보다 정돈된 분위기의 낮에는 채광을 활용한 밝은 공간으로 주로 차나 간단한 식사를 위해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한 공간이다([그림 14]참고). 이처럼 카페 바타비아에는 독특한 경관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박물관 관람보다 적극적인 문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용객이 방문한다.



[그림 15] 카페 바타비아 내부

(출처: 한인니문화연구원)

카페 바타비아 옆에 위치한 우체국(Kantor Pos, [그림 11]의 ⑥)건물은 1929년 우체국으로 만들어졌다. 이 건물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체국으로 활용되며, 다른 일부는 현대 미술관이다. 파타힐라 광장의 동쪽에 위치한 미술·도자기 박물관(Museum of Fine Arts and Ceramics, Museum Seni Rupa dan Keramik, [그림 11]의 ③)은 1870년대 완공되어 사법 재판소로

²²⁾ The Jakarta Post, 2017/03/31, "Jakpost guide to Kota Tua", https://www.thejakarta post.com/travel/2017/03/31/jakpost-guide-to-kota-tua.html

사용되었다. 독립 이후 서(西)자카르타 시장 집무실 등으로 활용되다 1976 년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1년 네덜란드 정부의 원조로 이 박물관은 다시 한번 개축을 하여 현재의 모습이 된다. 다음으로 와양 박물관(Wayang Museum, [그림 11]의 ④)은 현재 여러 지역의 와양(Wayang,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인형극) 인형이 전시되어있으며 와양 인형극이 열리기도 하는 박물관이다. 이 건물은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인들이 다니는 교회로 처음 지어졌으며 이후 무역 회사의 창고로 활용된 기록도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Jakarta Kota 기차역에서 파타힐라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은행 박물관(Museum Bank Indonesia, [그림 11]의 ⑦)은 18세기 후반 병원으로 처음 건축되었으며 이후 1828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중앙은행(Netherlands Indies gulden)의 건물이 된다. 이후 이 건물은 1942년 일본 점령 시기부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으로 활용되다 2008년 인도네시아 통화, 무역의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개조된다.

이상으로 설명한 파타힐라 광장 주변의 주요 건물들은 네덜란드 식민지배 기간에 건축된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며 내부를 인도네시아의 전통, 현대문화·예술·역사적 요소로 채운 건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건물들은 파타힐라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해있는데([그림 11]의 ①), 이 건물들의 외관을 통해 식민주의 경관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타힐라 광장의 주변 건물의 내부는 현재 문화·예술·역사의 공간으로 활용되고있지만, 식민지배기간 이 공간은 공개 처형과 집단 교화 등 잔혹한 식민 통치 행위가 발생하던 장소이기도 하다([그림 15] 참고). 파타힐라 광장에는 이와 같은 식민주의 폭력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관이 남아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그림 13]의 아래 그림과 같이 정치범 수용소나 [그림 15]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당시 네덜란드 식민 권력이 수용소에 가둔 정치범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체와 연결시켜 묶어둔 지름 약 1미터의 구(球) 형태의 돌(현재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한 말뚝(bollard)으로 활용) 등이 있다.



[그림 16] 식민주의 공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파타힐라 광장 (출처: Tropenmuseum 소장(좌), 한인니문화연구원(우))

이처럼 건물과 공간의 외관 및 형태를 통해 여전히 식민주의 폭력을 발견할 수 있는 파타힐라 광장은 현재 다양한 문화적 행위(버스킹 공연, 플래시몹 공연, 자전거 타기, 기념품 판매 등)가 실천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했다(인터뷰 참여자 7; 8; 14, [그림 16] 참고). 공간의 변화는 1970년대부터이어진 꼬따 뚜아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자카르타 주정부와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 공간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는 파타힐라 광장을 포함한 꼬따 뚜아 지구의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이 공간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조성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인터뷰 참여자 6; 7; 9; 10; 11; 14).



[그림 17] 파타힐라 광장에서 실천되는 문화적 행위 (출처: Tempo²³⁾)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꼬따 뚜아 재생 사 업은 자카르타 시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이는 주 로 파타힐라 광장이 공공 공간(열린 공간)이 부족한 자카르타에서 보행자 중 심의 공공 공간으로서 갖는 의미(인터뷰 참여자 6; 7; 8; 9; 10; 16)와 역 사문화적 자산으로서 갖는 의미(인터뷰 참여자 8; 10; 11; 17), 즐거움과 만남의 공간으로서 갖는 의미(인터뷰 참여자 6; 13; 14; 16) 등을 평가한 것이다. 파타힐라 광장이 갖는 이상의 의미는 (지방) 정부가 이를 통해 기대 했던 경제적 이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인터뷰 참여자 7; 10; 13; 14). 그러 나 파타힐라 광장과 재생 사업이 갖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성과)에도 불구 하고 공간 관계자들로부터 도시 공간 재생 사업 이후 파타힐라 광장의 한계 도 지적된다. 주로 지적되는 공간의 한계는 대중 교통 및 주차 장소의 부족 과 보행 도로 부족(인터뷰 참여자 6; 7; 8; 12), 무분별한 비공식적 상업행 위(노점상)(인터뷰 참여자 10; 11; 12). 공간 재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 적인 종합 계획의 미비(인터뷰 참여자 9; 11; 16; 17) 등이다. 또한 이러한 한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시도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인터뷰 참여자 9; 10).

이 공간을 방문하는 사용자들 대부분은 (지방) 정부의 꼬따 뚜아 재생 사업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그 의도에 따라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인터뷰 참여자 9; 10; 12; 13; 16). 공공 공간인 파타할라 광장은 이 공간을 방문하는 사용자들에게 만남과 모임의 공간으로써, 사진을 찍고 자전거를 타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즐거움의 공간'으로 인식·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국적이고 독특한 경관(식민주의 경관, 유럽식 경관)을 관찰하고 인도네시아의 문화, 예술, 역사를 학습한다. 이와 같이 공간사용자들은 (지방) 정부의 공간 조성 의도를 대체적으로 수용하여 그 의도대로 공간을 사용하지만, 이 의도에 반하는, 혹은 확장된 공간 실천 행위를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 중 비공식적 상업 행위 운영과 이용이 대표적인

²³⁾ Tempo, 2017/09/06, "Museum Fatahillah Akan Direvitalisasi Seperti Monas", https://metro.tempo.co/read/906688/museum-fatahillah-akan-direvitalisasi-seperti-monas/full&view-ok

데, 구체적으로 방문자들은 공간과 관련된 기념품과 저가의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이용하거나 행위 예술을 관람하고 돈을 내는 행위 등이다 ([그림 16] 참고). 자카르타 주정부는 공간의 미관을 위해 이러한 비공식적 상업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인터뷰 참여자 6; 10; 12; UNESCO, 2014).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이 현재와 같은 공간의 특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공 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이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이 공간 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의도를 대체적으로 이해하 고 수용하지만, 이를 넘어 새로운 공간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파타힐라 광장 공간 사용자들이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동의·수용하는 한편, 변화한 공간에 새로운 의미까지 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인터뷰 참여자 8; 9; 10; 13; 14; 16; 18).

"꼬따 뚜아에서도 파타힐라 광장과 항구 지역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자카르타 시민들도 이 공간이 식민주의 공간임을 잘 알고 있으며, 식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의 경관이 보존되어야 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민주의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바뀌는 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주의 공간과 문화는 문화 자산이 되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간 사용자들은 파타힐라 광장이)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자카르타의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길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3;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년 02월 15일)

위 인터뷰 답변에서 잘 드러나듯이, 도시 공간 재생 사업에 담긴 (지방) 정부의 의도가 파타힐라 광장 변화에 반영되어, 이를 공간 사용자들이 이해 하고 그들의 의도에 맞춰 확장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는 이상으로 설명한 (지방) 정부가 주도한 도시 공간 재생 사업과 공간 사 용자들의 자발적인 공간 실천으로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변화한 파타힐라 광 장에서 발견되는 공간 (실천)의 특성을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는 탈식민주의 공간으로의 변화 과정에 담긴 (지방) 정부의 의도와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 사이의 조화와 충돌에 집중하여 공간 특성과 탈식민주의 공간으로써 갖는 의미를 드러낸다.

2. 혼성성의 공간

이상으로 식민주의 공간이었던 파타힐라 광장이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파타힐라 광장의 경관 변화와 주요 공간 실천 행위자들을 설명했다.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변화한 현재 파타힐라 광장의 경관은 다층적인 혼성성이 발견되는 공간으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여운경(2018)에 따르면바타비아는 17세기부터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이들이 충돌하고 혼합하는 '혼성성의 사회 구조'가 형성되며 독특한 문화와 사회 관계가 발생했다. 이처럼 꼬따 뚜아와 파타힐라 광장은 오랜 기간 동안 단일한 공간 정체성으로 인식되기보다 여러 문화의 혼재로 발생한 풍부한 혼성성이 발견되는 공간으로 인식됐다. 아래에서는 도시 공간 재생 사업 과정에서 탈식민주의 공간실천을 통해 변화한 파타힐라 광장을 풍부한 혼성성이 발견되는 공간으로 제시한다.

먼저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역사적 혼성성이 발견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파타힐라 광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시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이곳에 위치한 식민 통치를 위해 조성한 건물들의 외형이 원형과 유사하게 보존되어 있는 공간이다. 반면, 공간의 내부 운용은 도시 공간 재생 사업의 의도에 맞게 변형되었는데, 파타힐라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네덜란드 식민 지배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문화예술 자원(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예술 작품, 현대 미술 등)이 전시, 공연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꼬따 뚜아 재생 사업을 통한 파타힐라 광장 주변의 건물 내부 복원 방식은 식민주의 건물의 사용 목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필요)에 따른

복원이라 평가할 수 있다(인터뷰 참여자 11; 12; 14).

"1972년 재생 사업을 시작하며 광장의 이름을 (1527년 포르투갈의 침략에 맞서 싸운 장군의 이름인) '파타힐라'로 지은 것은 비극적 역사를 '제쳐두기로 한' 결정입니다. ... (식민지배 당시) 공개 처형장으로 사용되던 광장에서 (현재 공간 사용자들이) 사진을 찍는 행위를 (역사적) 무지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과거와 화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8;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년 01월 19일)

위 인터뷰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의 결과인 파타힐라 광장 및 주변 건물의 내·외부 불일치는 공간 사용자들의 인식 및실천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식민주의를 경험한 한국의 주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없애거나 공간의 식민주의적 사용 목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전시, 외관과 내부 운용을 일치시키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과 비교하여 이해하면 그 특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과 주변 건물들은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통해 외형과 내부가 보존과 변형 사이에서 혼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공간 및 건물의 외관과 내부의혼성적인 관계로부터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과거와 현재, 역사적 시간의 혼성성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파타힐라 광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혼성성은 비공식성에 대한 공간 실천 주체들의 인식 차이에서 발견되는 혼성성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비공식성이란 파타힐라 광장 공간 사용자들의 꼬따 뚜아 재생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의도와 반하는, 혹은 우회하여 수용하는 공간 실천 방식을 의미한다. 꼬따 뚜아 재생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며(인터뷰 참여자 9; 10; 17), 이는 재생 사업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며 '세계적 수준'을 평가받으려 한 시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파타힐라 광장은 공간 사용자들에게 환영받는 공간으로 변화했지만, 여러 공간적 한계가지적되며 공간 재생 사업에서 (지방) 정부의 최종 목표였던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 등재 시도는 무산되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부족이 지적되었다(인터뷰 참여자 8; 9; 15; 17).

이처럼 꼬따 뚜아 재생사업에 담긴 파타힐라 광장을 변화시키려는 (지방) 정부의 의도는 관리 체계의 부족으로 전부 실현되지 않았지만, 느슨한(혹은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비공식성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만들었다. 파타힐라 광장에서 발견되는 주요 비공식성은 비공식적 상업행위인데, 노점상, 행위 예술가(인간동상(manusia perak), 마술, 버스킹 공연 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그림 16]참고). 비공식적 상업 행위는 광장 중심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주로 기차역에서 파타힐라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행해진다([그림 11] 참고). 이 길은꼬따 뚜아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던 1990년대 후반까지 차가 다니던 길로 현재는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 도로로 조성한 이후 파타힐라 광장의 주요 출입구역할을 하고 있다. 비공식적 상업 행위를 하는 이들은 두 개의 조합(Fatahillah Square Traders Cooperative, Society of Kota Tua Warrior Traders)에 나누어가입되어있으며, 약 4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UNESCO, 2014).

(지방) 정부는 이들이 공간 경관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광장 외부에 상업행위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등 파타힐라 광장 안에서 비공식적 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인터뷰참여자 11; 12). 이에 대해 공간 관계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공간의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적당히 정비하여 활성화해야한다는 의견을 갖는 반면(인터뷰참여자 8; 13; 16), 다른 일부는 공간의 경관을 해치고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을 방해한다고 여겨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인터뷰참여자 6; 10). 비공식적 상업 행위에 대해공간 관계자들이 상반된 의견을 갖는 이유 중하나는 이 행위에 대한 선호가 계층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계층의사람들은 파타힐라 광장의 비공식적 상업 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소비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계층의 사람들은 이를 선호하지 않아소비하지 않으며 불편하게 여긴다(인터뷰참여자 8; 17). 이를 통해 적어도일부 공간 사용자들로부터 비공식적 상업 행위는 실천·소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재생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이 존재하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파타힐라 광장의 비공식적 상업 행위는 공간 재생 사업을 둘러싼 공간 실천의 주요 행위자 간((지방) 정부-공간 사용자)의 의도 및 수용의 차이로부터 발견되는 혼성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계층적 혼성성이 발견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공공 공간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에 경제적 중하위 계층들이 여가 생활을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인터뷰 참여자 5; 7; 8; 15; 16; 박준영, 2020). 그러나 꼬따 뚜아 재생 사업이후 파타힐라 광장은 자카르타에서 상대적으로 대중 교통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조성되었다(인터뷰 참여자 5; 17). 이에 대한주요 요인으로는 기차와 버스, 오토바이 택시 등 파타힐라 광장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와 보행자 도로의 조성, 그리고 주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저렴한 입장료 등이 있다(인터뷰 참여자 9; 15; 16). 이에따라 파타힐라 광장은, 비록 (지방) 정부가 꼬따 뚜아 재생 사업을 통해 의도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는 되지 못했지만, 경제적 중하위 계층들이 쉽게찾을 수 있고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공간 관계자 중 일부는 파타힐라 광장 조성 과정에서 경제적 중하위 계층들만지나치게 고려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인터뷰 참여자 8; 10).

"파타힐라 광장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 입니다. ... 파타힐라 광장이 이처럼 포괄적 공간(Inclusive Area)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 계층간 교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 타힐라 광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자연스러운 마주침으로 교류가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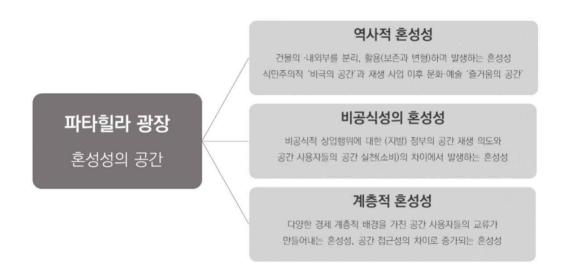
(인터뷰 참여자 16, 자카르타 도시 계획 전문가, 2021년 03월 03일)

위 인터뷰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파타힐라 광장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린 광장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인터뷰 참여자 7; 10; 11; 12; 14; 15; 17). 현재 파타힐라 광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방문객들이 방문하 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파타힐라 광장이 그동안 자카르타에서 마땅히 방문할 곳이 없었던 경제적 중하위 계층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이 자체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서로다른 배경을 가진 공간 사용자들이 비록 이런 목적으로 공간에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호 교류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인터뷰 참여자 9; 15; 16; 18). 이처럼파타힐라 광장에서는 계층 간 우연적인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공간 사용에 있어 경제적 계층 배경이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계층적 혼성성이 발견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인종·경제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한 구분과 차별은 네덜란드 식민 통치의 주요 전략이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사회 주요 갈등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계층 간 교류는 탈식민주의적 공간 실천 특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인터뷰 참여자 3; 14; 15).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이 사회·경제적으로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행자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신체 장애인들이 공간 방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인터뷰 참여자 6; 8; 16). 파타힐라 광장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사회적 접근성은 폭넓게 열려 있지만 물리적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한 열림과 닫힘의 공존은 공간 접근성의 혼성성을 더하는 요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파타힐라 광장은 역사, 비공식성, 계층 등의 기준에서 다층적이고 풍부한 혼성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의 이러한 혼성성은 이 공간이 과거 식민주의를 대표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기도하며 식민주의 이후 재생 사업 과정에서 탈식민주의 공간실천을 통해 형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은 단일하고 고정된 특성이 강조되는 공간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혼성성을 갖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과 공간 실천에서 발견한 혼성성은 앞서설명한 '제3의 공간'의 주요 특성이자 실천 전략이라는 점에서 파타힐라 광장

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제3의 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으로 설명한 파타힐라 광장의 변화 과정과 변화 이후 공간 특성을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과 '제3의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그림 18] 파타힐라 광장의 혼성적 요소

제 2 절 제3의 공간 너머

1. 탈식민주의 인식과 공간 실천

이전 절에서 파타힐라 광장이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변화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절에서는 이 공간에서 발견되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특성을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과기존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이전 장(제4장의 제2절)에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에대해 '객관적인 역사 이해'와 '실용성'을 주요 특징으로 갖는다고 설명했다.이는 긴 식민지배 기간과 갑작스럽고 복잡한 독립 과정을 경험하며 형성되었고, 인도네시아의 건국 정신과 현재 국가와 사회 운영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공간인 파타힐라 광장에서 발견되는 공간 및 공간 실천 특성에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의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있는 그대로의'역사 재현이 강조되는데, 이는 파타힐라 광장이 도시 공간 재생 사업 과정에서 건물과 길, 광장 등의 외형(식민주의 경관)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 했다는 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공간 관계자들은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서 외관이 보존된 파타힐라 광장의 의미를 평가했다(인터뷰 참여자 7; 10; 11; 12; 15). 즉, 파타힐라 광장은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기 건물과 공간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당시의 역사를 목격·체험하게 하여 이를 통해 교육과 학습에 활용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발견되는 식민주의 경관이 식민주의 피해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불편한경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간을 없애거나 외면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외관을 직시하며 역사적 교훈을 얻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인터뷰 참여자 10; 16). 이처럼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역사 공간을 보존하여 교육과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주의 역사에 대한 분노와 아

픔 등 감정(정서)의 문제를 탈식민주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와 분리하고자하는 태도를 제시할 수 있다(인터뷰 참여자 8; 9; 16).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식민주의 역사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과거와 현재 행위(공간 실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꼬따 뚜아와 파타힐라 광장을 단지 '네덜란드 사람들의 공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인도네시아인)도 공유는 역사적 유산(Shared heritage)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이 공간을 만들고 재생했습니다. ... 우리가 관련없다고 생각하면, 역사와 유산은 끊기는 것입니다. 공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역사에 개입되어야 나에게 의미가 생깁니다. ...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혼합·혼성의 문화(Mixture culture)라 할수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9; 자카르타 도시 계획 전문가. 2021년 1월 16일)

이처럼 꼬따 뚜아 재생 사업에서 파타힐라 광장의 외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데 대한 공간 실천 태도는 역사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기회 제공, 인식과 실천에서 감정의 지나친 개입의 배제, 주체적 역사 인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특성은 공간의 실용적 활용이다. 파타힐라 광장 건물들의 외형은원형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부의 운영은 현재의 필요에 맞게 실용적으로 변경했으며, 건물과 광장의 용도 변경 역사에 대해서는 이전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식민주의 공간은 (지방) 정부와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을 통해 문화예술의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를 통해탈식민주의 공간으로써 파타힐라 광장의 새로운 공간 의미가 만들어졌다(인터뷰 참여자 13; 14; 16).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에서 상충하는 공간 실천 가치(목적)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있는 그대로의'역사적 공간 보존과 실용적 공간 조성이라는 목표는 공간에서 동시에 실현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조화는 건물과 광장의 외형과 내부를 분리하여 이해하며 이 둘을 다르게 활용하며 달성되었다. 건물의 외형은 객관적 역사 재현과 관광지 경관 조성, 그리고 역사 교육 및

학습을 위해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건물의 용도(내부)는 현재의 필요에 맞게 변경했다. 이를 통해 꼬따 뚜아와 파타힐라 광장은 식민주의적 경관을 발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파타힐라 광장 공간 사용자들은 공간 재생 이후 상충하는 가치의 조화를 이해하고 수용했으며, 나아가 새로운 공간적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파타힐라 광장은 다층적인 혼성적 요소가 발견되는 제3의 공간이 되었다. 이전 절에서 설명했듯이, 공간의 내·외부를 분리하여 활용하며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역사적 혼성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비공식성의 혼성성, 계층적 혼성성을 발생시키는 배경이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객관적 역사 재현과 실용성으로 요약되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과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의 상호연관적 특성은 파타힐라 광장을 제3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상으로 설명한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특성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의 주요 특성인 '객관적 역사 이해'와 '실용성'은 파타힐라 광장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서 각각 외형 보존과 내부 변형·활용으로 연결된다. 이와같은 공간 실천으로 파타힐라 광장은 풍부한 혼성성이 발견되는 제3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반면, 앞선 장(제4장)에서 저항의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 추모비 건립 시도 무산 사례에서 발견되는 탈식민주의 공간 특성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의 특징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오히려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의 주요 특징과 상반되는 특성을 갖는다고설명했다. 나아가, 이 차이를 탈식민주의 공간 조성 시도 무산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분석했다. 아래에서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의 주요 특징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 특성을 기존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2. 자발적이며 비의도적인 공간 실천

파타힐라 광장이 식민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공간 실천)과 변화 이후 공간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혼성

성은 '제3의 공간' 실천 개념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파타힐라 광장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서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특성이 발견된다. 나아가 파타힐라 광장 공간 실천은 의미론적(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인 제3의 공간 개념을 구체화하며 탈식민주의 비관주의에 반박한다. 아래에서는 기존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연구에 제기되는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 특성을 설명한다.

앞서 문헌 연구에서 설명했듯이, 혼성성이 실현되는 제3의 공간에서는 긴장감이 발생한다. 이 긴장감은 (탈)식민주의 공간을 구성하는 정치·문화적 식민 권력과 피식민 주체의 의도 및 실천의 충돌에서 발생하며, 이는 (탈)식민주의 공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먼저 긴장감은 식민 지배 권력이 식민지에서 상상하고 강요했던 정형화된 관계에 균열을 내며 불안을 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긴장감은 탈(반)식민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제도·정치적으로 식민주의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신식민주의로부터 사회·문화적독립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긴장감의 탈식민 전략적 역할은 현재의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신식민주의적 억압이 물질적이라기보다 의식을 통해 작용하는 비가시적 억압이라는점에서 신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은 식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국주의적 서구근대성의 논리를 거부하며 실천돼야 한다. 파타힐라 광장에서 발견되는 혼성적 긴장감은 서구 근대성의 기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탈식민 전략으로 기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긴장감은 다양한 문화 정체성들이 충돌하고 교섭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 이는 (신)식민주의적 억압에 저항하는 탈식민 전략으로써 긴장감의 역할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라 이해할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역사와 의도, 계층이 혼재하고 이들의 '뒤섞임' 자체가 새로운 문화가 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인도네시아 건국정신인 빤짜실라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조적 문화에서 식민주의의 흔적은 건물과 공간의 외형으로만 존재할 뿐, 내부의 문화적 성격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즉, 현재 파타힐라 광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무기력한 식

민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며,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기능한다.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의 긴장감은 식민주의 논리와 관계에 균열을 내며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기능한다. 의미론적 탈식민주의(식민주의 너 머) 공간 실천 개념인 제3의 공간을 통해 설명되는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 주의 공간 실천 사례는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식민주의 이후)에 제기되는 비 관주의를 극복하고 있다. 즉, 식민주의 이항대립 구조를 상정한 시간론적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 과거와 단절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시간·의미적 으로 연결되며 진정한 해방적 실천이 될 수 없다는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및 비관이 파타힐라 광장 사례에서는 극복되고 있다. 파타힐라 광장은 식민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지만, 공간의 탈식민적 긴장감을 통해 식민주의 질서 및 외관을 현재의 필요에 맞춰 전유하고 이를 통해 새 로운 해방적 질서인 문화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에서 공간 실천 행위자들은 식민주의 이항대립 관계에 속하기보다 해방적 구조에서 복수성의 창조적 탈식민주의 행위를 실천한다. 반면 제4장에서 설 명한 추모비 건립 시도 사례에서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 시간론적 탈식 민주의에 내재한 비관주의를 답습하며 주요 행위자들을 공간 실천에 동참시 키지 못하며 무산되었다.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 사례의 공간 실천은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인 제3의 공간을 통해 설명되며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이론이 비판하는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의 비관을 극복한다. 나아가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특성에서는 제3의 공간 실천 개념의 이론적 모호성을 구체화한다. 이는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인 제3의 공간이 구체적인 공간이나 실천 사례를 대상으로 논의되기보다 추상적이고 은유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구체적 사례 공간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제3의 공간 개념 정의로는 구체화하지 않은 공간 실천 특성이 발견되며 개념에 대한 비관주의의 일부를 반박할 수 있다. 이를통해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의 확장을 시도한다.

"파타힐라 광장은 현재 모임과 만남의 장소이며, '스스로를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문화예술적 요소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장소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14; 파타힐라 광장 내 박물관 관계자, 2021년 3월 3일)

"파타힐라 광장은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교류 장소입니다. ... 이 전에는 무섭고 어두운 장소였지만, 현재는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 '아래로 부터(From the bottom)' 생기는 새로운 창조적 문화 현상들이 있습니다. ...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6; 자카르타 도시 계획 전문가, 2021년 3월 3일)

제3의 공간 실천 개념을 구체화하는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 특성은 '자발성'과 '비의도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파타힐라 광장 공간 실천의 전제는 행위자들의 공간 방문이다. 위 인터뷰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간 사용자들은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한 파타힐라 광장을 '즐거움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여가 활동을 위해 방문한다(인터뷰 참여자 6; 9; 13; 14; 15; 16). 파타힐라 광장과 주변의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은 파타힐라 광장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며, 축제와 같은 특별한 유희적 요소는 더 많은 방문을 이끈다. 공간사용자들은 파타힐라 광장의 문화·예술적 요소를 즐기기 위해 파타힐라 광장에 방문하거나, 혹은 단순한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문은 책임이나 의무에 의한 방문이라기보다 자발적 방문으로 해석할 수있다.

파타힐라 광장 공간 실천의 또 다른 특성인 비의도성은 이 공간 실천이 탈식민주의 실천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바바(2012)는 탈식민 전략으로 혼성성을 의도적인 실천과 비의도적인 실천으로 구분했으며, 두 경우 모두 탈식민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원(1998)은 식민지 피지배인들의 비의도적인(무의식적인) 실천을 '모방'으로, 식민적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기위한 의도적 실천을 '혼성'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간디(2000)는 혼성성의 비의도적인 실천 역시 탈식민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

폭력적이고 보편적인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를 '혼성성의 윤리'로 설명했다. 위 인터뷰 답변과 같이 파타힐라 광장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은 의식적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라기보다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즉,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은 결과를 의도하지 않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공간 실천이다. 따라서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은 비의도적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라 설명할 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 공간 사용자들의 비의도적인 공간 실천은 혼성적 긴장감을 만들어냈으며, 이로 인해 파타힐라 광장을 의미론적(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복수성의 공간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요인)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자발적인 방문에 의한 비의도적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발성이고 비의도적인 탈식민주의 실천은 비폭력적이고 비교적 쉬운 실천 방식으로 폭넓은 실천을 가능케하며, 또한 다른 의도로 실천된 공간적 역량도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전용(轉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 즉, 다양한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여러 방식(복수성)의 실천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탈식민주의 실천의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해방성이 실현된다. 이런 점에서 간디(2000)가 주장한 혼성성의 윤리가 파타힐라 광장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파타힐라 광장에서 자발적인 참여(방문)로 실현된 비의도적인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의 결과는 파타힐라 광장의 혼성성으로 나타나며 주요탈식민 전략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특성은 기존의 제3의 공간 실천 개념에서 논의되지 않은 구체적 실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제4장에서 추모비 건립 시도 사례가 기존 논의 개념(저항의 공간)으로 온전히 설명되는(설명 범위에 포함) 사례였던 점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은 개념과 실천 방식의 모호성에 대한 기존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이론에 제기되는 비관주의 또한 반박한다. 의미론적 탈식민주의(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인 제3의 공간에 대한 비관주의는 '그 개념이 모호해서 실제로 적용·실천하기 어렵다'는 비관과 '탈식민주의의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저항을 무시한 비저항적 담론'이라는 비판을 포함한다. 먼저 혼성성과 제3의 공간은 이론적 담론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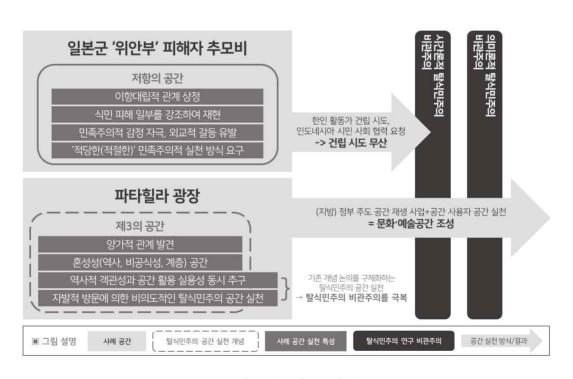
실현되기엔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이라는 비관에 대해서는 파타힐라 광장과 공간 사용자들의 존재 그 자체로 반박할 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의 물리적인 공간 존재와 공간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탈식민주의 공간실천은 개념적,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논의되었던 제3의 공간을 물리적 존재로 증명하며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연구에 대한 비관주의를 극복한다. 다음으로 저항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는 앞서 설명한 파타힐라 광장 공간 실천특성으로 반박할 수 있다. 파타힐라 광장의 '자발적인 방문에 의한 비의도적 실천'에서 다양한 실천은 탈식민주의 실천으로 전용된다. 이를 통해 더많은 역량이 보다 지속적으로 탈식민주의 저항으로 기능한다.

이상으로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은 제3의 공간(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에 제기되는 비관주의에도 적절히 반박하며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 및 방식의 확장을 시도한다.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저항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실천되며 폭넓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한 이 방식은 획일화된 교조적 실천 방식이 아닌 자발적이고 해방적인 복수성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파타힐라 광장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시간론·의미론적인 탈식민주의에 제기되는 비관주의를 동시에 극복하며 발생하는 가능성이다. 이처럼 제3의 공간 사례의 구체적인 분석은 다른 제3의 공간 실천의 설명(분석)을 요청한다. 이로 인해 제3의 공간 실천은 인식과실천의 복수성을 실현하고 비관주의를 극복한다. 따라서 파타힐라 광장 사례는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인 혼성성의 제3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방적 가능성을 보여주며 탈식민주의 실천 방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 설명한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 특성이 갖는 의미는 여러 기준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의 대안이나 전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먼저본 연구의 분석이 한 국가의 특정 공간의 공간 실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라는 한계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기존 권력 질서의 정형화와 고착화및 탈식민주의 인식과 실천 방식의 획일화를 문제삼는 제3의 공간 실천으로 설명된 사례 공간을 논의하며 대안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은 이 공간이 내포하는 탈식민주의 전략과도 상충한다. 따라서 특정

공간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은 새로운 전형의 제 안이 아닌, 복수성의 공간 실천 담론과 방식의 해방적 제안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설명하는 본 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및 공간 실천의 반례로 설명되었고, 따라서 이 공간 실천이 인도네시아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으로 설득되지 못한 이유에 집중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이 공간적특성의 탈식민주의 공간적 특성으로써 절대적인 부정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또한 사회·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추모비와 같은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저항의 공간 실천)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전략적 본질론'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저항의 공간 실천은 탈식민주의 실천의 어느 단계에서는 필수적이거나 임시적(과도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본론(제4-5장)에서 서술한 연구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8]과 같다.



[그림 19] 연구 결과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사례를 분석했다. 이 분석은 공간 실천 행위자들의 의도와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간 실천 행위자의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 행위자와 공간 실천을 통해 공간적 결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간 실천 행위자와 공간, 그리고 외부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결과를 만들었다. 공간 실천 분석 결과는 탈식민주의 연구에 제기된 비관주의를 기준으로 검증하며 탈식민주의 논의의 확장을 시도했다. 사례 공간으로는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건립을 시도했다 무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와 식민주의 비극을 상징하던 공간에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한 파타힐라 광장을 살펴봤다. 사례 공간 (실천)은 탈식민주의의 지리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탈식민주의의 접두어 '탈'의 해석을 두고 벌어지는 탈식민주의 논의 및 실천의 논쟁의 양 측(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을 상징하는 공간 실천 개념인 '저항의 공간'과 '제3의 공간'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갖고 진행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추모비 건립 시도는 한인 활동가들이 다른 주요 공간 실천 행위자인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에게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지 못하며 무산(잠정 중단)됐다. 추모비 건립에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가 협력(동참)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측의 반발 및 방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인 활동가들이 제안한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방식과 역사적 객관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특성 간 차이가 있었다. 건립 시도가무산됨에 따라 공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한인 활동가들이 건립을 위해 참고했던 추모비의 형태와 추모비 건립 설득 논리로부터 공간 (실천)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인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에 건립하고자 했던 추모비는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 중 '저항의 공간'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인 활동가들이 구상한 공간은 피해자와 피해 사실의 일부가 사실적으로 강조되며 가해자(국가)의 식민 폭력을 고발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실천은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에 입각한 실천으로, 의미론적 탈식민주의(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논의에 따르면 식민주의를 작동시킨 식민적 이항대립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재생산하며 결과적으로는 식민주의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실현될 수 없다는 비관주의를 재현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파타힐라 광장은 식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에서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가 주도한 공간 재생 사업에 공간 사용자들의 공간 실천이 더해지며 현재의 모습(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공간 사용자들로부터 환영받은 파타힐라 광장의 변화에서 복수성의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 발견된다. 파타힐라 광장은 역사비공식성·계층의 기준에서 풍부한 혼성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바바(2012)가 제안하는 탈식민주의 공간 개념인 '제3의 공간'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역사적 혼성성은 건물의 내·외부를 분리하여 활용하며 형성되었고, 비공식성의 혼성성은 재생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의도와 공간 사용자들의 의도가 부합하거나 혹은 어긋나며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계층적 혼성성은 다양한 경제 계층적 배경을 가진 공간 사용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조우하며 형성됐다. 파타힐라 광장의 혼성성은 탈식민적 긴장감을 형성했고 이 긴장감은 탈식민 저항의 역량이자 문화예술 창조적 역량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공간 실천에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인식 특성으로 제시한 역사적 객관성과 실용성이 발견된다.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은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 발견되는 사례로, 이 실천에서 시간론적 탈식민주의에 제기된 비관주의를 극복한다. 즉, 현재의 파타힐라 광장에서는 식민주의 논리 및 역사적 과거와 분리되며 해방적 현재와 미래가 실천된다. 나아가 파타힐라 광장 공간 실천 사례는 기존에 개념적·추상적으로 논의된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 개념인 제3의 공간 개념이 제시하지 못한 구체적 탈식민주의 실천 전략을 설명하며 의미론적 탈식민주의에 제기되는 비판 및 비관주의 또한 극복한다.

파타힐라 광장의 공간 실천 사례가 구체화한 공간 실천은 '자발적인 방문에 의한 비의도적 실천'으로, 이를 해방적인 복수성의 실천으로 해석했다. 이와 같은 실천 특성은 탈식민주의 비관주의를 극복하며 다른 복수성의 의미론적 탈식민주의 실천과 분석을 요청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갖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탈식민주의 연구와 논의에서 발견되는 주요 논쟁의 양 측을 상징하는 공간 실천 개념을 구체적인 공간 실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식민지배를 경험하고 탈식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국가 혹은 사회들은 역사지리적 맥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식민주의 피해 양상은 상이하게 발견되며, 이에 따라 탈식민주의실천 방식은 다양한 배경적 맥락과 실천 행위자들의 특성 등과 상호작용하며 논의·실천된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실천에 대한 분석도 지리(공간)적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구체적 공간 실천 사례를 분석한 이연구가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두 사례 공간 실천은 인도네시아의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공간의 존재(존재하는 공간과 존재하지 않는(조성 시도가 무산된) 공간), 공간 조성 주체와 대상 식민주의 기간 등 여러 기준에서 의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되며 공간 실천과 그결과가 갖는 의미를 보다 풍부하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구체적 공간 실천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탈식민주의 비관주의에 대한 반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식민주의를 시간론·의미론적 탈식민주의로 구분하고, 각 탈식민주의에 제기되는 비관주의를 설명했다. 기존 탈식민주의 연구·논의에서는 탈식민주의비관주의는 주로 탈식민주의 내부 논쟁에서 소모적으로 활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탈식민주의 비관주의를 한 측의 탈식민주의입장에서 다른 측의탈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데 활용하기보다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실천을 논의했다. 사례 공간 실천에서 복수성의 실천을 허용하는 해방적인 특성으로부터 탈식민주의 비관주의 극복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복수성의 탈식민주의 실천과 분석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탈식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에 참고·비교점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탈식민주의 실천에 참여,혹은 이를 관찰한 예상 독자들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의 탈식민주의 인식 및 공간 실천은 본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연구자와 같이 한국의 탈식민주의 인식 및 실천의 맥락을 이해하는 예상 독자들은 이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의 탈식민주의 실천 비교·분석에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결과가 이후 탈식민주의 개념 및 이론 연구,혹은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분석 연구의 참고·비교점으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간디, 릴라. 이영욱 역. (2000).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현실문화 연구.
- 김영수. (2020). 인도네시아 '위안부' 배경과 현황. 나눔의 집/제1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2019년 11월 9일) 발표. 창작21 2020 가을호.
- 김용규. (2005). 포스트 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 : 호미 바바 읽기. 비평과이론, 10(1), 29-57.
- 김재철. (2018). 아감벤의 공간 그리고 탈식민주의. 비평과이론, 23(2), 67-92.
- 김지현·박효엽·이상환·홍인식. (2012).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서울: 역락.
- 나카마사, 마사키. 김상운 역. (2018). 자크 데리다를 읽는 시간. 경기도: 아르테. 2018.
- 뚜르, 쁘라무디야 아난따. 김영수 역. (2019).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이야기. 서울: 동쪽나라.
- 무어-길버트, 바트. 이경원 역. (2003).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서울: 한길사.
- 문경희. (2018). 호주 한인들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운동. 페미니즘 연구, 18(1), 47-92.
- 바바, 호미, 나병철 역. (2012),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 박민수. (2015).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인문학논총. 39. 23-41.
- 박은홍. (2010). "제3세계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의 혼종성: 동남아시아 맥락에서의 탈식민주의적 관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8(0), 162-186.
- _____. (2015). 탈식민체제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식민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8(0), 310-339.

- 박준영. (2020). 재외 한인 이주 사회 여성 주체의 등장: 인도네시아 한인 여성 활동가 모빌리티 차별, 네트워크 자본 배제 극복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107-141.
- 배동선. (2018).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서울: 아모르문디
- 변해철. (2012). 인도네시아 헌법의 기본 이념인 빤짜실라(Pancasila)의 형성 과정과 의미. 토지공법연구, 56, 421-441.
- 사이드, 에드워드, 박홍규 역. (2004).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샤프, 조앤. 이영민·박경환 역. (2011). 포스트 식민주의의 지리. 서울: 여이연
- 서지원·김형준. (2019). 인도네시아 2018: 수하르토 퇴진 후 20년, 일상화된 선거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동남아시아연구, 29(2), 55-87.
- 소병국. (2020). 동남아시아사. 서울: 책과함께.
- 송승원. (2014).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적 국사서술의 성격과 역사수정 노력. 동남아연구, 23(3), 65-101.
- 스콧, 제임스 C.. (2010). 국가처럼보기. 서울: 에코리브르
- 앤더슨. 베네딕트. 서지원 역. (2018). 상상된 공동체. 서울: 길
- 양승윤. (1998). 대동아공영권 구도하 일본의 인도네시아 식민통치. 동남아 연구, 7, 67-98.
- 양승윤. (2014). 인도네시아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여운경. (2017). 1950-60년대 인도네시아의 정치 변화와 수카르노의 "혁명". 동양사학연구, 139, 93-125.
- _____. (2018). 베스털링(Westerling)을 찾아서: 1950년대 인도네시아의 탈 식민지화와 네덜란드인 문제. 인문논총, 47, 5-26.
- _____. (2018). 바타비아, 차별과 혼종성이 공존하는 열대의 네덜란드. 정병설. 18세기 도시. 경기도: 문학동네.
- 우신구. (2016). 식민지 수도 하노이의 제국주의적 경관. 서울학연구, 64, 77-120.
- 윤진표·제대식, (2000).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연구. 국제정치논총, 40(3), 317-336.

- 이경원. (1998).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실천문학, 50, 257-284.
- _____. (2000).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비평과이론, 5(2), 5-42.
- _____. (2011). 검은역사 하얀이론. 경기도: 한길사.
- 이소희. (2001). 호미 바바의 "제3의 영역"에 대한 고찰. 영미문학페미니즘, 9(1), 103-125.
- 이영진. (2021). 제국의 곤경과 저항의 논리: 포스트식민주의 연구 리뷰. 사회과학연구, 60(1), 305-335.
- 이지원. (2020). 반일 민족주의와 시민적 조절의 가능성. 인문사회 21, 11(1), 947-962.
- 전제성. (2003). 동남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인도네시아 역사교 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동아연구, 45, 71-101.
- 정희선. (2013). 소수자 저항의 공간적 실천과 재현의 정치 -일본군 "위안 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101-116.
- 최경희·고우정·박준영. (2019).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정부 정 책 전망. 외교부 연구용역과제.
- 최종천. (2011).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의 해체론적 접근 바바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 범한철학, 61(2), 389-413.
- 크레스웰, 팀. 박경환·류연택·심승희·정현주·서태동 역, (2015). 지리사상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 파일, 스티브. (2013). 12장: 프란츠 파농의 고통스러운 공간. 크랭, 마이크· 스리프트, 나이절. 최병두 역. 공간적 사유. 서울: 에코리브르.
- Ahmad, A. (1994). In theory: Classes, nations, literatures. verso.
- Ahmad, A. (1995). The politics of literary postcoloniality. *Race & Class* 36(3), 1–20.
- Datta A. (2018). Postcolonial urban futures: Imagining and governing In dia's smart urban ag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 d Space*, *37(3)*, 393–410.

- Gandhi, L. (1998).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Columbi a University Press.
- Goddeeris, I. (2015). Colonial streets and statues: Postcolonial Belgium i n the public space. *Postcolonial Studies*, *18(4)*, 397–409.
- Griffiths, M. (2017). From heterogeneous worlds: Western privilege, class s and positionality in the South. *Area, 49(1), 2–8.*
- Hart, G. (2018), Relational comparison revisited: Marxist postcolonial g eographies in prac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3),* 37 1–394.
- Hidayat, R., Ismariati, R. & Apriliandini, Y. (2019). Connecting Identity and Image of City Branding in Kota Tua (Old City) Jakarta. *IB IMA Business Review*, *2019*, 1–10.
- Hindrati, E., & Kimura, K. (2007). *Momoye mereka memanggilku.* Esen si.
- Cash, J., & Kinnvall, Catarina. (2017). Postcolonial bordering and ontol ogical insecurities, *Postcolonial Studies*, *20(3)*, 267–274
- Kehoe, M. L. (2008). The Paradox of Post-Colonial Historic Preservation: Implications of Dutch Heritage Preservation in Modern Jakar ta. *E-Polis: Online Student Journal of Urban Studies 2.*
- Kehoe, M. L. (2015). Dutch Batavia: Exposing the Hierarchy of the Dutch Colonial City. *Journal of Historians of Netherlandish Art.* 7 (10). 1–35
- Moore-Gilbert, B. J. (1997). *Postcolonial theory: Contexts, practices, politics.* Verso.
- Moser, S. (2008). Performing National Identity in Postcolonial Indonesia. Ph. D Theses. 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Nordholt, H. S. (2011). Indonesia in the 1950s. Nation, modernity, and

- the post-colonial state.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 nkunde, 167(4),* 386-404
- Nurpratiwi, H., Hermanu J., & Suryani, N. (2017). Jugun Ianfu: The C onstruction of Students' Awareness on Gender. *International Jou rnal of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Understanding, 4(1),* 8–14.
- Pugh, J. (2017). Postcolonial development, (non) sovereignty and affect: 1 iving on in the wake of Caribbean political independence. *Antip ode*, 49(4), 867–882.
- Roy, A. (2016). Who's afraid of postcolonial theory?. International Jour 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0(1), 200-209.
- Salim, L., & Sustaningrum, R. (2019). Brand heritage, Brand equity, Cit y branding dan word of mouth dari Kota tua Jakarta. *Prosiding Working Papers Series In Management*, 11(2), 39–54.
- Sluimers, L. (1996). The Japanese Military and Indonesian Independenc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7(1),* 19–36.
- Trihoni, Y., Dewi, Y. & Triatmodjo, M. (2015). Indonesian Jugun Ianf u: Suing Justice According to Humanitarian Law Perspective. *K orea University Law Review, 17,* 41–52
- UCLG. (2017). Revitalizing Cultural Heritage; A comprehensive urban p lan to revitalize Kota Tua in Jakarta, UCLG Learning Team(E d).
-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 on). (2014). Analytical study of Kota Tua, Jakarta. Robertson, N., Sutanudjaja, A., Henderson, A., Kusalasari, M. I. (ed).
- Whyte, C. (2016). Between empire and colony: American imperialism and Pan-African colonialism in Liberia, 1810-2003, *National Identities*, 18(1), 71-88

Abstract

Indonesian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s

 Through the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 concepts of "space of resistance" and "the third space" -

Junyoung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a distinct geographic dimension to colonialism in that the history of colonialism was realized by geographic expansion. Not only was colonial desire embodied through change in the landscape, but also visually represented and rendered into a simplified map. Accordingly, the discussion of post-colonialism is actively approached from a geographic perspective. In accordance with this neces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post-colonialism spatial practices in Indonesia by using the concept of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 Post-colonialism is divided into temporal post-colonialism (after-colonialism) and semantic post-colonialism (beyond-colonialism)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fix "Post-". Controversy and compromise arise between thes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post-colonialism, and the debate between the two interpretations arises over the acceptance of post-structuralism. In this process, post-colonial pessimisms are raised against either definition.

The concept of spatial practice is found in temporal and semantic post-colonialism, which can be distinguished by the acceptance of post-structuralism. First, the concept of spatial practice within temporal post-colonialism that criticizes or rejects post-structuralism is "space of resistance", where historical (material/actual/tangible) resistance emphasi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victims of colonialism. With respect to the "space of resistance", which is the spatial practice of temporal post-colonialism, the pessimism is raised in that it cannot achieve ultimate liberation by reproducing and fixing the colonial binary oppositional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spatial practice within semantic post-colonialism formed by actively post-structuralism is "the third space" proposed by Homi K. Bhabha. In the practice of "the third space", an ambivalent relationship is assumed rather than a standardized colonial composition (role) and hybrid practice is emphasized. However, the pessimism is raised in that the concept of "the third space", which is a semantic post-colonial space practice influenced by post-structuralism, is too vague and cannot lead to physical(actual) practices.

This study analyzes the monument memorializing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nument") that Korean activists living in Indonesia attempted to build and the Fatahillah Square located in northern Jakarta as a case space. The two case spaces are interpreted as "space of resistance" and "the third space", respectively. The two spaces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at they are explained by the concepts of both sides of the post–colonial debate, and the actors of spatial practices are relatively identifiable.

The two case spaces are analyzed through the concept of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 and pessimism introduced earli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nument, which Korean

activists attempted to build in Indonesia, is a space where the practice of the victims is emphasized in the colonial binomial confrontation, and it can be interpreted as a "space of resistance", a concept of temporal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 The attempt to build a monument failed due to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gaining cooperation from Indonesian civil society. The direct cause of the failure of cooperation in the construction of the monument was opposition and obstruction from the Japanese communities in Indonesia, but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ost-colonialism was found as a more fundamental caus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ndonesia's post-colonialism perception shared by Indonesian civil society can be summarized as historical objectivity and practicability. This perception was different from the post-colonial practice of space in which Korean activists requested cooperation. Indonesian civil society refused to endorse this spatial practice by not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istic and emotional request for cooperation in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 based on the colonial binomial structure, and this choice can be said to be in line with the pessimism of temporal post-colonialism.

On the other hand, Fatahillah Square was transformed from a space that symbolized the tragedy of colonialism into the current cultural and artistic space through the voluntary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s of space users in the urban space regeneration project led by the Indonesian (local) government. In this spa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space", such as the cultural mixture and hybridity, are found rather than the colonial binary oppositional composition. The practice of post-colonial space found in the case of Fatahillah Square reflects the perception of post-colonialism in Indonesia. In addition, while this case is interpreted as "the third space", a semantic post-colonial concept, it expands the scope of the existing discussion by specifying the concept.

The spatial practice of this case is unintentionally realized by voluntary visitation, and this characteristic expands the explanatory scope of the existing concept. In this process, it overcomes the pessimism raised by both temporal and semantic post–colonialism. As such, the characteristic of the liberating spatial practice of Fatahillah Square, which appropriately refutes the pessimism of post–colonialism, demands plural liberating practices in other spaces.

By applying the concept of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 to actual spac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existing literature on post-colonial space, which has focused on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r the geographical consequences of colonialism.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spatial practice results of the two cases and used them to refute the pessimism of post-colonialism. This is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in which post-colonial pessimism is used only for internal debates post-colonialism.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comparative reference for countries and societies that have experienced colonialism and are contemplating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ost-colonialism, including Korea.

keywords: Post-colonial spatial practice, Indonesia, Space of resistance,
The third space, Fatahillah Square, Monu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Student Number : 2019-24135

부록: 인터뷰 참여자 명단

순서	구분	직책	인터뷰 날짜(횟수)	인터뷰 형식
1	탈식민주의 전반	경제 전문가	2021/01/14	온라인 화상 인터뷰
2	탈식민주의 전반	인도네시아 역사 전문가	2021/01/30	온라인 화상 인터뷰
3	탈식민주의 전반	인도네시아 역사 전문가	2021/02/04	온라인 화상 인터뷰
4	탈식민주의 전반	인도네시아 역사 전문가	2021/02/24	서면 인터뷰
5	탈식민주의 전반	인도네시아 역사 전문가	2021/02/26	서면 인터뷰
6	파타힐라 광장	도시 계획 전문가	2021/01/12	서면 인터뷰
7	파타힐라 광장	도시 계획 전문가	2021/01/15	서면 인터뷰
8	파타힐라 광장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01/19	서면 인터뷰
9	파타힐라 광장	도시 계획 전문가	2021/01/26	온라인 화상 인터뷰
10	파타힐라 광장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02/13	서면 인터뷰
11	파타힐라 광장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02/14	서면 인터뷰
12	파타힐라 광장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02/14	서면 인터뷰
13	파타힐라 광장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02/15	서면 인터뷰
14	파타힐라 광장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02/15	서면 인터뷰
15	파타힐라 광장	파타힐라 광장 관계자	2021/02/25	서면 인터뷰
16	파타힐라 광장	도시 계획 전문가	2021/03/03	온라인 화상 인터뷰

	2 2 2 2 2 2 2	- 1 12 -1 - 1	0004 (00 (00	3-1-4-34
17	파타힐라 광장	도시 계획 전문가	2021/02/20	서면 인터뷰
18	추모비, 파타힐라 광장	인도네시아 역사, 문화 전문가	2020/10/23, 2021/02/15	대면 인터뷰
19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인도네시아)	2020/11/04	온라인 화상 인터뷰
20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인도네시아)	2020/11/04	온라인 화상 인터뷰
21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인도네시아)	2020/11/04	온라인 화상 인터뷰
22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인도네시아)	2020/11/20	대면 인터뷰
23	추모비	정의연 활동가	2020/11/26	온라인 화상 인터뷰
24	추모비	인도네시아 인권 활동 단체 활동가	2020/12/30, 2021/01/08	서면 인터뷰
25	추모비, 탈식민주의 전반	인도네시아 역사 활동 단체 활동가	2021/01/08, 2021/01/18	서면 인터뷰
26	추모비	국회의원, 前 정의연 활동가	2021/01/13	대면 인터뷰
27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시드니)	2021/02/01	온라인 화상 인터뷰
28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시드니)	2021/02/01	온라인 화상 인터뷰
29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샌프란시스코)	2021/02/02	서면 인터뷰
30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샌프란시스코)	2021/02/03	서면 인터뷰
31	추모비	재외 한인 활동가(시드니)	2021/02/04	온라인 화상 인터뷰